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1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동사와 부사의 사건구조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혜 경

동사와 부사의 사건구조에
관한 연구

Event structures of the verbs and the adverbs

2011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혜경

동사와 부사의 사건구조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이 영 현

이 논문을 문학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이 혜 경

이혜경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전남대학교 교수 송경안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영현 (인)

위원 대불대학교 교수 안종기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남근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조학행 (인)

2011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사건구조 의미표시의 문제점	11
2.1 신-Davidson의 의미기술	17
2.2 의미역에 의한 의미표시	19
제 3 장 동사의 사건구조	23
3.1 수여동사의 사건구조	26
3.2 복합동사의 사건구조	34
제 4 장 사건구조와 상	43
제 5 장 부사의 사건구조	50
5.1 영역부사	55
5.2 반환부사어	57
5.3 태도부사	62
5.4 측정부사	66
5.5 부사의 상호관계	69
제 6 장 결 론	74
참고문헌	76

ABSTRACT

Event structures of the verbs and the adverbs

by Lee, Hye-Gyoung

Advisor : Prof. Lee, Young-Hern, Ph. D.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event structures of complex verbs and adverbs in English and Korean and to represent their meanings by logical form. However, the event structures of Korean complex verbs are very complicate because they have a juxtapositional structure of verbs. In addition to this, the adverbs also take part in the event structure with respect to the verbs. so the whole event structures of the predicate are more complicate. In order to simplify the formal representation for those expressions we take the subatomic semantics as the descriptive device.

The event structure of the verbs or the adverbs could be analysed as two subparts. The one is upper VP and the other is low VP by the lexical decomposition. The former represents the process of the event and the latter represents the core event. However, the subparts of the event in Korean verb could be represented as multiple structures because Korean has the serial or complex verb structure such as V1 + V2 in a simple VP. For instance, English verb "give" can be decomposed as "hold" and "pick up" with respect to the objects that the verb goes with. On the other hand, Korean complex verb such as [Gip-a-ju-da; pick it up and give it to someone] consists of two verbs such as "pick" and "give".

It means that Korean complex verb structures represents the substructures of the decomposed the verb of English.

We also argue that the Korean adverbs also represent the different event structure according to the semantic characters of the adverbs such as speaker-oriented adverbs, domain adverbs, restitutive adverbs, manner adverbs, and measure adverbs. For instance the event structure of the domain adverb can be represented as $CR(d, c^*)$, where $CR(d, c^*)$ is a contextual restriction on conditions c^* , in terms of the domain d .

Finally when those adverbs appear together in a sentence sometimes there is a conflict between those adverb. We also argue that those grammatical or ungrammatical expressions can be explained by the different event structures of the adverbs.

However, we focused on the event structure of Korean complex verbs and some adverbs, but we have to expand the denotation for the serial verbs and the other adverbs in future.

제 1 장 서 론

어휘 의미론(lexical semantics) 가운데 아원자 의미론(subatomic semantics)은 시간이나 공간, 변화나 원인등과 같은 요소들을 보편문법의 기본요소로 간주하고, 이들 요소를 사건(event)이나 사건구조(event structure)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상향식(bottom-up) 분석은 논리적 의미론(logical semantics)의 하향식(top-down) 분석과 양립함으로써 상호 보완적 의미 기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논리적 의미론에서는 함의(entailment)나 전제(presupposition)관계를 단순히 명제 p가 명제 q을 함의 또는 전제한다는 주장 외에 p와 q 사이에 어떤 논리적 관계가 있는가를 명시하지 못하는데 반해서 아원자 의미론에서는 명제 p을 몇 개의 아원자 명제로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관계를 명시할 수 있다. 그러나 아원자 의미론은 명제 $(p \rightarrow q) \rightarrow p$ 라는 관계를 설명하는 데 너무 많은 비용이 드는 문제가 있다. 이렇듯 어휘 의미론은 논리적 의미론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한 논리적 의미론은 어휘 의미론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연언어 기술의 출발점을 어휘의 의미론에 바탕을 두고 형식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어(이후로는 국어로 칭함)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와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사건 구조적 의미 기술의 적절성을 입증하고, 나아가서는 사건 구조에 간여하는 부사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들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사건구조와 상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 어휘 의미론의 보편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동사의 의미 기술은 외연(denotation)이나 내포(intention), 시제(tense), 그리고 상(aspect)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상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변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적 의미는 어휘가 갖는 특성뿐만 아니라, 문법적 구조에 따라 서로 상이한 특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동사나 동사구가 갖는 상적 의미는 문법적 상과 의미적 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

- (1) a. John is playing the guitar.
- b. John has played the guitar.

이른바 (1a)의 동사구 is playing이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기타를 연주하는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상, 다시 말해 진행(progress)상을 나타내는 데 반해서 (1b)의 has played는 연주가 지금 막 종료된 상황, 즉 완료(perfect)상을 나타낸다.

이러한 문법적 상 외에도 동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에 의하여 동사가 나타내는 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¹⁾

- (2) a. He continued to work.
- b. He giggles at the party
- c. He knocked him out in the fourth round.
- d. He handed me a book.
- e. The boat slowed up as it came in.

(2a)의 continue는 그 의미적 특성으로 보아 어떤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지속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2b)는 킁킁거리는 사건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반복상(iterative)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2c)는 사실상(effective), (2d)는 종지상(terminative) 그리고 마지막으로 (2e)는 기동상(ingressive)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에 대한 분류 기준은 대단히 자의적 판단에 의한 것이며 학자에 따라 더 많은 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Aristotle 이래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사건으로 간주하고 상은 사건의 내적 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즉 사건의 상적 분류를 행위유형(aktionsarten)이라고 칭하며, 행위유형이란 action과 sort or type이 결합한 것으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Ryle, R.(1949), Anthony Kenny(1963), Zeno Vendler(1967)와 같은 철학자들은 동사가 나타내는 상을 나눌 수 있는 기준으로 경계성(bound), 변화(change), 그리고 지속성(duration)에 근거하여, 상태(state), 성취(achievement), 행위(activities), 완수(accomplishment)의 4가지 상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면 (2)에서 말하는 상들은 모두 행위에 해당하는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를 사건(event)로 간주하고 이들 사건이 어떤 내적 구조를 가졌는가에 의하여 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동사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간주된다(이영현;2002).

Vendler(1967)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상적 특성에 따라 상태동사, 행위동사,

1) Curme(1931:373-388) Durative, point-action(ingressive, effective), terminative, iterative 로 구분하고 있다.

완수동사, 성취동사로 분류하고 있다.

(3) state	activities	accomplishments	achivements
know	run	paint a picture	recognize
believe	wal	make a chair	spot
have	swim	deliver a sermon	find
desire	push a cart	draw a circle	lose
love	drive a car	push a cart	reach
		recover from illness	die

이와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상에 따라 동사를 4가지의 하위범주로 분류한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성(eventuality)²⁾에 근거한 것이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내적 구조는 변화, 지속성, 그리고 경계성에 근거한 것이다.

(4)	Change	Duration	Bound (Kearns; 2000)
State	-	+	-
Achievment	+	-	+
Activity/process	+	+	-
Accomplishme	+	+	+

(4)에서 제시한 것처럼 상을 상태상, 완수상, 지속상, 그리고 행위상으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사건이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지속성을 갖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건이 경계성을 갖는가에 따른 분류이다. 이렇듯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상을 분류할 수 있는 근거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동사가 나타내는 상태상(예컨대 know 등)은 지속기간(duration)만 있을 뿐 변화와 경계점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완수상(예컨대 paint a picture)은 사건이 발생의 최초시점³⁾에서부터 사건이 지속되는 기간을 거쳐서 사건이 종료되는 경계점을 갖는다. 그러나 행위상(예컨대 walk)은 사건이 발단되어 지속기간은 있지만, 경계점을 갖지 않는 경우이다. 예컨대 걷다의 의미는 한

2) 사건성이라는 용어는 Emmon Bach(1986)가 처음 사용하였으며, 사건(event)과 상태(state)를 나타내는 말이다.

3) 학자에 따라서는 발단(onset)으로 칭하기도 한다

발을 들어 올렸다 내리는 순간 다른 발이 올라가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며, 동시에 이 두개의 사건이 지속되는 경우이지만, 경계점을 갖지는 않는다. 그리고 성취상(예컨대 see)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인식하는 상태로 변화가 발생하지만, 인식(보는데)하는 데 있어서 지속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경계점을 갖지도 않는다.⁴⁾

이렇듯 동사가 나타내는 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으로 상의 하위범주 설정의 문제가 제기될 뿐만 아니라, 단순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의미적 상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서술어 의미 기술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상을 나타내는 동사들을 상태, 동작/행위, 성취, 완수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들 상이 나타내는 특성을 요약하면 상태와 완수는 종결(telic)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할 수 있으며, 행위/동작과 성취는 비종결(atelic)이라고 대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상을 크게 종결과 비종결로 분류하고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간결한 동사의 상적 의미 기술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국어의 동사는 단순동사, 복합동사, 그리고 사슬동사로 대별되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동사의 사건구조를 살펴보는 것이 선결과제가 될 것이다. 국어 사슬동사(serial verb)에 있어서는 더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다. 첫째, 국어의 사슬동사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V1 + V2 + ...의 구조를 가지며, 마지막에 나타나는 V가 논항을 갖는 경우는 명시적 사슬동사로 간주하지만, 논항을 갖지 못하는 경우에 마지막 V를 사슬동사가 아닌 보조동사로 간주하기 때문이다(이영현; 2005).

(5) a. 철수는 떡을 먹어 치웠다.

b. 철수는 떡을 먹어 보았다.

(5)에는 동일하게 두 동사가 공기하는 경우이다. 즉 (5a)에는 *떡다*와 *치우다*가 나란히 쓰인 경우이고, (5b)에는 *떡다*와 *보다*가 쓰인 경우이다. 우선 (5a)의 *떡다*의 논항은 *철수*와 *떡*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치우다*의 논항 역시 *철수*와 *떡*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먹어 치우다*는 명시적인 논항을 갖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5b)에서 제 1동사 *떡다*는 논항 *철수*와 *떡*을 갖는 2항 술어이지만, 제 2동사 *보았다*는 *철수*만을

4) 이영현(2005)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성을 상의 입장에서 분류한다면, 상태상과 성취상에 대한 구분은 변화, 지속기간, 경계점에서 서로 상대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지만, 행위상과 완수상은 동일한 자질을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자질을 갖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 두 동사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논항으로 취할 뿐 떡은 논항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철수가 떡을 먹었다면 실제로 떡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다*의 논항이 될 수 없다. 이렇듯 제 2동사가 2항 술어이면서도 명시적으로 두개의 논항을 취하지 못하는 경우 이를 보조동사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제2 동사가 제1동사와 마찬가지로 명시적 논항을 취하는 경우를 사슬동사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들 제2 동사가 제1동사와 같은 논항을 갖는 경우라 할지라도 제 1동사와 제2동사가 공기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6) a. *철수는 떡을 치워 먹었다.

b. 철수는 떡을 집어 먹었다.

(5a)의 두 동사는 각각 동일한 논항을 갖는 2항 술어이지만 제1동사 *떡다*와 제2동사 *치우다*의 어순을 바꾸면 비문법적인 표현이 유도된다. 즉 (6a)가 비문법적인 것은 (5a)의 제1동사와 제2동사의 어순이 바뀌었기 때문에 야기된 비문법적 표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b)의 경우 *떡다*는 제 2동사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이다. 이와 같이 제1동사와 제2동사가 동일한 2항 술어 임에도 불구하고 (6a)가 비문법적인데 반해서 (6b)가 문법적인 것은 동사들이 갖는 상적 의미가 상이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상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상적 제약성을 기술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로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에 따라 상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7) a. John ate an apple

b. John ate apples.

(7a)의 경우 행위동사 *ate*의 목적어가 명시적 양화의미를 갖는 경우이고, (7b)는 원형 복수명사를 논항으로 갖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대상인 사과를 먹는 행위가 진행되는 동안 사과의 형태 변화는 발생할 수 있으며, 사과의 존재의 문제도 제기된다. 그러나 (7b)의 경우에는 사건의 종점 및 사과의 존재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서 Yoshikawa(2003)의 주장에 따르면 행위동사의 과거형은 양화 명사구의 지시대상이 소멸된다는 것이다. 즉 시제와 상이 논항의 상쇄를 야기하는 문제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양화 표현에 대한 새로운 대안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양화논리 표현에 있어서도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특성에 의한 양화명사구 지시

대상물 부재의 의미를 나타내지 못한다.

- (8) a. * Past [$\exists x(\text{Apple}(x) \wedge \text{Eat}(j, x))$]
b. Present [$\exists x(\text{Apple}(x) \wedge \text{Eat}(j, x))$]

(8a)는 (7a)의 양화 논리적 의미표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먹어버린 사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모순된 의미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7a)의 현재형일 경우는 (8b)와 같이 적절한 논리적 표시가 가능할 것이다. 물론 양화의미를 갖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

셋째, Russell(1906)과 Strawson(1960)에서 제기된 전제/함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논항과 함수자에 대한 구분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9) The king of France is bald.

(10)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즉 (9)는 (10)를 함의하지만 각각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 (11) a. $\exists s\{\text{Bald}(s) \wedge \text{Subject}(\text{king of France}, s)\}$
b. $\exists s\{\text{king of France}(s)\}$

(9)는 (10)을 함의하면서도 각각의 사건 구조적 의미기술 (11a)가 (11b)를 함의하는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11a)가 (11b)를 함의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9)의 주부인 $\text{Subject}(\text{king of France}, s)$ 와 (10)이 동일한 논리식으로 기술되어야 할 것이다. 즉 (11a)의 두 명제와 (11b)의 명제 가운데는 동일한 명제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1a)를 (12)와 같이 주어를 두 개의 독립 명제로 분석해야 할 것이다.

(12) $\exists s[\text{king of France}(s) \wedge \text{bald}(s)]$

그러나 (12)와 같은 형식화는 상태($\exists s$)는 동일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즉 $\exists s[\text{king}$

of Frances(s)]에서 s와 $\exists s[\text{Bald}(s)]$ 의 s는 동일한 s로 간주할 수 없다. 여기에서 문제는 서술어로 쓰일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그러나 개체의 속성을 나타내는 요소는 주어로서의 기능은 물론이고 서술어로 기능을 할 수 있다.

- (13) a. The book is on the table.
 b. There is a book on the table.

(13a)와 (13b)의 의미가 동일하다면 (13a)의 the book는 주어로서 기능을 하지만, (13b)의 is a book은 서술적 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의 주어인 the king of France는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다.

- (14) a. The king of France is bald.
 b. There is a king of France who is bald.

- (15) a. $\exists s\{\text{Bald}(s)\} \wedge \text{Subject}(\text{king of France}, s)$
 b. $\exists s\{\text{king of France}(s) \wedge \text{Bald}(s)\}$

(15a)와 (15b)의 서로 다른 점은 Subject의 논항은 king of France와 s이다. king of France가 bald인 상태라는 것일 뿐, king of France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언급과는 다르다. 즉 Subject는 2항 술어이다. 그런데 반해서 (15b)의 s는 king of France의 논항이기 때문에 이는 king of France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동시에 그 왕은 bald인 상태임을 말한다. (14)의 의미를 (15)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면 (9)는 (10)을 함의하고 있음을 사건구조 의미론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부사 가운데 모든 술부부사는 사건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표현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구조적 의미 기술이 용이하지만, 평가부사나 증거 부사 등 이른바 향 화자 (speaker-oriented) 부사는 사건 구조적 의미 기술이 불가능하다.

- (16) a. 확실히 철수는 용감하다.
 b. 다행히 철수는 시험에 합격했다.

- (17) a. 확실하다(철수는 용감하다)
 b. *다행하다(철수는 시험에 합격했다.)

(16)에 들어있는 부사 *확실히*와 *다행히*는 모두 문장부사이다. 따라서 (16a)의 의미를 (17a)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16b)의 의미는 (17b)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면 이들 부사는 모두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7a)는 (16a)의 의미를 적절하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반해서 (17b)는 (16b)의 올바른 의미표시라고 할 수 없다. (17b)와 같은 의미기술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부사 *다행히*의 논항은 단순명제가 아니라, 명제에 대한 화자의 평가이다. 바꾸어 말하여 *다행히*의 논항은 화자와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는 2항 술어라고 할 수 있다. 즉 명제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는 화자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명제가 된다. 예컨대 화자가 John 이었다면, (16b)의 의미는 “John은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철수가 시험에 합격했다는 사실은 다행일 수도 불행일 수도 있으나 화자의 입장에서 다행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미이다.

다섯째, 문장부사는 물론이고 술부부사의 경우 이들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다. Jackendoff(1972), Ernst (2002)등에 따르면 문장부사의 위치에 따라 서로 상이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 (18) a. Clumsily John spilled the beans.
 b. John spilled the beans clumsily.

(18a)에서 보는 것처럼 *clumsily*가 문두에 오는 경우 “it was clumsy of John to spill the beans”의 의미로 눈치 없이 존은 콩을 었질렀다의 의미인데 반해서 (18b)의 의미는 *clumsily*가 문미에 오는 경우로서 존이 콩을 었질은 행위가 눈치 없었다는 의미이다. 즉 ‘John spilled the beans in a clumsy manner’라는 의미이다. 이렇듯 문장부사라 할지라도 이들 부사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나 이들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나타낼 경우 각각의 의미 차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 (19) a. $\exists e[\text{Spill}(e)] \wedge \text{Clumsy}(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text{Object}(\text{beans}, e)$
 b. $\exists e[\text{Spill}(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text{Object}(\text{beans}, e) \wedge \text{Clumsy}(e)]$

(19a)와 (19b)는 동일한 의미를 나타낸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p \wedge q \equiv q \wedge p$ 가 성립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태도부사라 할지라도 이들이 나타나는 위치에 따라 의미적 차이가 생길 수 있다.

(20) a. Quickly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b.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quickly.

Travis(1988)에 따르면 (20a)의 quickly는 체포된 사건을 수식하는 데 반해서 (20b)의 quickly는 체포되는 과정을 수식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20a)는 체포하는 사건이 신속하게 발생했다는 의미인데 반해서 (20b)는 체포하는 행위가 신속하게 발생했다는 의미이다. 즉 전자의 경우는 사건이 터지자마자 곧바로 체포하였다는 의미이고, 후자의 경우는 언제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민첩한 행동으로 John을 체포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장부사는 물론이고 술부부사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들 부사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을 갖지만, 이들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나타낼 경우, 이러한 중의성을 기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에 봉착한다.

(21) a. $\exists e\{\text{Arrest}(e)\} \wedge \text{Quick}(e) \wedge \text{Agent}(\text{Police}, e) \wedge \text{Object}(\text{John}, e)$

b. $\exists e\{\text{Arrest}(e)\} \wedge \text{Agent}(\text{Police}, e) \wedge \text{Object}(\text{John}, e) \wedge \text{Quick}(e)$

(21)에서 (21a)와 (21b)의 의미가 동일한 것은 결합법칙(associative law)에 따라 $p \wedge q \equiv q \wedge p$ 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장부사는 물론이고 술부부사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의미적 중의성을 기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이렇듯 사건구조 의미 기술에 있어서 동사구의 특성, 그리고 이들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특성, 나아가서는 부사구와 동사와의 관계에서 상적 특성이 대단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건구조적 기술을 위한 사건구조 의미모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아원자 의미론을 모형으로 삼아 영어의 수여동사와 국어의 복합 동사의 대조를 통하여 이들 동사가 갖는 사건구조와 상적 의미와의 상관관계 살펴보고, 나아가서 사건구조에 간여하는 부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와 상적 의미와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본 논문의 제 2 장에서는 사건구조 의미 기술에 있어서 동사와 부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 의미표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아원자 의미론의 모형을 제시한다. 제 3 장에서는 영어의 수여동사를 중심으로 국어의 복합동사의 대조를 통한 사건구조를 제시하고 이들 사건구조가 나타내는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제 4 장에서는 사건구조

와 상의 의미를 개괄함으로써, 사건구조와 상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제 5 장에서는 사건구조에 관여하는 부사의 사건구조를 파악하고 이들 부사 사이의 상관관계 및 부사들의 통사적 관계를 규명한다. 마지막으로 제 6 장은 결론으로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한다.

제 2 장 사건구조 의미표시의 문제점

어휘 의미론에 기초한 사건구조 의미론은 논리적 의미론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논리적 의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전제(presupposition)와 함의(entailment)의 관계를 기술함에 있어서 두 명제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노정된다. 이러한 전제와 함의의 문제는 Russell(1906)과 Strawson(1960)에서 논의되었던 존재적 명제의 문제 뿐 만 아니라 부가어(adjunct)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함의 문제를 기술하는 데 대단히 자의적이고, 또한 명시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Russell(1906)은 (22)가 (23)을 함의(entail)한다고 주장한다.

(22) The king of France is bald.

(23)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그런데 반해서 Strawson(1960)에서는 (22)은 (23)를 함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presuppose)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한 현상을 두고 서로 달리 정의하고 있는 것은 이들 두 문장이 갖는 진리치에 근거한 것이다.

Russell(1906)에 따르면 (22)가 참이면 (23)역시 참이며, 또한 (23)이 거짓이면, (22)역시 거짓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Strawson(1960)은 만일에 (22)가 참이면 (23) 역시 참이지만, (23)이 거짓이면 (22)는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것이다. 이렇듯 (22)와 (23) 사이에는 분명한 의미적 관계가 있음에도 서로 다른 현상으로 간주한 것은 (23)의 진리치가 무엇이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러한 정의상의 문제는 두 명제 사이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정의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22) The king of France is bald. = p

(23) There exists a king of France. = q

즉 명제 (22)을 p라고 하고 명제(23)를 q라고 할 때 p와 q 사이의 함의관계를 $p \Rightarrow q^5$ 라고 기

5) 여기에서 \Rightarrow 는 entail이나 presuppose를 나타낸다.

술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기술이냐의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p는 q를 함의한다고 정의하는 것은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아무런 논리적 필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형식화는 단순한 기호화일 뿐 논리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24) $p \rightarrow q$

t	t	t
t	f	f
f	t	t
f	f	f

p는 q를 함의한다는 형식적 기술 $p \Rightarrow q$ 는 (24)의 진리표(truth-value table)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제 p와 명제 q 사이의 관계는 우연(contingent)명제이기 때문에 p가 q를 함의한다는 주장은 자의적 기호화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명제 p와 q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p가 q를 함의하는 관계를 형식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이러한 함의/전제 관계는 물론이고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있어서도 함의 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형식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25) a. John walks slowly = p
 b. John walks. = q

(25)의 경우에 (25a)는 (25b)를 함의하지만, 이러한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있어서 두 명제 사이에 논리적 형식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렇듯 두 명제 사이에 전제나 함의 관계 또는 부사에 의한 함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두 명제 사이에 논리적 참인 관계로 정의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사건구조 의미론은 Davidson(1967)에서 처음으로 소개되었으며, 명제를 사건(event)과 사건구조(event structure)로 파악하려고 하였다.

- (26)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midnight.
 b. BUTTER(j,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midnight)

전통적으로 부사는 문장의 주요 기능어의 범주에 속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부가어(adjunction)

로 간주하여 명제가 나타나는 사건의 부가적 현상만을 기술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부가어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구조를 복합명제구조로 파악한다면, 부가어의 유무에 따른 함의나 전제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Davidson(1967)은 부사를 서술어의 논항으로 간주함으로써, 예컨대 (26a)의 *slowly,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at midnight*은 (26b)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어 *buttered*의 논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부사구 표현도 그 의미에 있어서는 사건과 관련된 논항 개념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또한 Davidson(1967)에서는 서술어의 논항 수는 문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서술어로 간주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27) a. Jones buttered the toast.
- b. Jones buttered the toast with a knife.

- (27)' a. Buttered(jones, toast)
- b. Buttered(jones, toast, knife)

바꾸어 말하면 부가어에 따라 서술어의 논항수를 결정하는 것이 함의와 전제의 문제를 논의하는 데 적절함을 보이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서술어는 논항의 수가 결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27)의 논리식 (27a)'에서 보는 것처럼 서술어 *buttered*는 2항 술어로 간주될 수도 있고, (27b)'에서 보는 것처럼 3항 술어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서술어가 문맥에 따라 논항의 수가 달라진다면 몇 가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첫째, (27a)와 (27b)의 동사 *buttered*는 동일한 동사이지만 (27a)'와 (27b)'에서 보는 것처럼 각기 다른 논항을 취한다면 *buttered*는 서로 다른 동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직관에 비추어 (27b)는 (27a)를 함의하지만, 각각의 논리적 표현에 있어서는 이러한 함의 관계 기술이 자의적 기호화에 불과하다.

- (28) a. (27b) \Rightarrow (27a)
- b. (27b)' $\not\Rightarrow$ (27a)'

즉 (27b)는 (27a)를 함의하지만 그 논리적 표현 (27)'에 있어서는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

다. 이러한 함의 관계를 기술하기 위해서 Davidson(1967)은 (29)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는 기본 명제에 연결되는 명제의 일부로써 표시하고 있다.

(29)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UTTER(j, the toast) \wedge p \wedge q

(p express 'slowly' and q express 'with a knife')

그러나 전통적으로 부사구는 명제표현으로 간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부사적 표현을 명제 p, q와 같은 명제적 표현으로 바꾸어 쓸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이영현, 유재근;2003).

(30) A: Jones buttered the toast with a knife in the bathroom

B: Jones did it with a knife.

B: Please tell me about it.

C: I believe it was with a knife.

C: I think it was in the bathroom.

(30)은 A의 발화에 대한 B와 C의 반응이다. B의 반응 가운데 it가 지시하는 것은 명사구 Jones나 toast가 아니라 Jones가 행한 사건(event)을 지시한다. 따라서 A의 발화에 대한 C의 반응을 나타내는 부사구는 명제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C의 반응 가운데 밑줄 친 부분 'x was with a knife'나 'x was in the bathroom'과 같은 단순한 명제 형식을 나타내는 문장들이다. 주어로 쓰이는 대명사 it는 Jones did it라는 명제이다. 이러한 명제는 앞에서 지시한 행위나 사건 즉, Jones buttered the toast라는 사건을 나타내는 단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with a knife와 in the bathroom과 같은 표현은 사건에 관한 서술어라는 것이다. 즉 행위동사가 들어 있는 문장의 의미는 사건과 관련된 사건지시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동사의 논항뿐만 아니라 사건도 행위동사의 논항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다.

(31)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with a knife.

b. $\exists e(\text{Butter}(\text{Johnes}, \text{the toast}, e) \wedge \text{Slowly}(e) \wedge \text{With}(e, \text{a knife}))$

(31a)의 의미를 Davidson식으로 표기하면 (31b)와 같다. 첫 번째 명제는 전통적인 명제적 표현, 즉 함수자와 두개의 논항(즉 butterer와 buttee)으로 이루어진 핵 명제이고, 두 번째 명제

는 부사가 나타내는 사건지시로서 명제적 표현, 즉 it was slowly라 할 수 있으며, 세 번 째 명제 역시 부사가 나타내는 명제 즉 it was with a knife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Davidson의 분석에서는 동사의 전통적 논항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건 논항을 도입하였고, 부사구는 사건에 관한 서술어라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 자체는 동사적 서술어의 논항이며, 시간이나 태도나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는 사건에 관한 서술어라는 것이다. 따라서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은 부사를 포함하지 않은 문장을 함의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이 핵 명제와 부가어를 명제적 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부가어가 들어있는 표현은 핵명제를 함의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 (32) a. Jones buttered the toast slowly.
 b. Jones buttered the toast.
 (33) a. $\exists e(\text{Butter}(\text{Johnes}, \text{the toast}, e) \wedge \text{Slowly}(e))$
 b. $\exists e(\text{Butter}(\text{Johnes}, \text{the toast}, e))$

(32)의 각각의 표현을 사건구조로 표시하면 (33)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33a)와 (33b)를 각각 일반 명제 형식으로 바꾸어 두 명제 사이의 함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

(34) $(p \wedge q) \rightarrow p$

t	t	t
f	t	f
f	t	t
f	t	f

즉 $(p \wedge q)$ 가 참이거나, 거짓일 때 p 가 참이면, $(p \wedge q) \rightarrow p$ 는 항상 참이 된다. 따라서 $(p \wedge q)$ 는 p 를 함의한다. 이렇듯 부가어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은 부가어가 없는 표현을 함의하고 있음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렇듯 Davidson(1967)에서는 부사를 논항표현으로 바꾸어 씌으로써 이들 사이의 함의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보일 수 있다.

(35) a. John painted the house carefully with a brush.

b. John painted the house.

(35a) \Rightarrow (35b)

(36) a. $\exists e(\text{Paint}(\text{John, house, } e) \ \& \ \text{Carefully}(e) \ \& \ \text{With}(e, \text{brush}))$

b. $\exists e(\text{Paint}(\text{John, house, } e))$

(36a) \Rightarrow (36b)

(35a)는 (35b)를 함의하며, 이들의 논리적 표현에 있어서도 (36a)는 (36b)를 함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36a)가 (36b)를 함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명제 논증식(argument form)에 의하여 알 수 있다.

(37) $p \wedge q \rightarrow p$

이러한 함의관계는 (37)과 같은 명제간의 관계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Davidson이 제시한 명제의 형식적 기술에 있어서 부사는 부가적 명제표현으로 간주함으로써 명제간의 함의관계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부사를 포함한 문장의 함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목적어 생략 현상에 있어서도 함의관계가 성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구조를 핵 명제로 간주한다면 논리적으로 함의관계를 기술할 수 없게 된다.

(38)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b. I flew to the Morning Star.

c. (38a) \Rightarrow (38b)

(39) a. $\exists e \text{ Flew}(\text{I, spaceship, } e) \wedge \text{To}(e, \text{Star})$

b. $\exists e \text{ Flew}(\text{I, } e) \wedge \text{To}(e, \text{Star})$

c. (39a) $\not\Rightarrow$ (39b)

목적어를 포함하고 있는 (38a)는 목적어가 생략된 (38b)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38a)의 사건 구조를 (39a)과 같이 기술하고 (38b)의 사건구조를 (39b)처럼 기술한다면 (38c)는

성립하면서 (39c)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모순을 낳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핵 명제를 더 작은 명제로 해체분석(decomposition)할 필요가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휘 의미론의 특성 가운데 하나인 어휘 해체를 통한 핵문을 보다 더 작은 단위인 아원자(subatomic) 단위로 분석하는 방안이다.

2.1 신-Davidson의 의미기술

함의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서 도입한 Davidson식의 의미 표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첫째, 하나의 명제를 독립적인 피 접속 명제로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이다. 즉 Davidson에서는 전통적인 동사의 논항구조를 유지하였다.

- (40) a. Jones buttered the toast.
 b. Jones did some buttering.
 c. The toast got buttered.

- (41) a. $\exists e$ Butter(jones, the toast, e)
 b. $\exists e$ Do(jones, buttering, e)
 c. $\exists e$ Buttered (the toast, e)

(40a)는 (40b)와 (40c)를 함의한다. 따라서 (40)의 각각의 논리식 (41)에 있어서도 (41a)는 (41b)와 (41c)를 함의함을 나타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의 논리식에서는 이러한 함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42) a. $\exists e$ Butter(jones, the toast, e) $\not\Rightarrow$ $\exists e$ Do(jones, buttering, e)
 b. $\exists e$ Butter(jones, the toast, e) $\not\Rightarrow$ $\exists e$ Buttered (the toast, e)

이러한 문제를 수정 보완하기 위한 방안 가운데 하나가 Hector-Neri Castaneda(1967)에서 제시한 핵 명제의 해체분석이다. (41a)가 (41b)와 (41c)를 함의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42)와 같은 의미 표시 방법을 신-Davidson(Neo-Davidsonian)식 표기법으로 수정하게 되었다.

- (43) a. $\exists e \text{ Butter}(j, \text{the toast}, e)$
 b. $\exists e \text{ Butter}(e) \wedge \text{Subject}(j, e) \wedge \text{Object}(\text{the toast}, e)$

(43a)는 Davidson식 의미표시이고 (43b)는 신-Davidson식 의미표시이다. 이와 같이 Davidson식의 논리식을 신-Davidson식으로 수정한다면 앞에서 보인 (38)의 함의 관계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다.

- (44)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b. I flew to the Morning Star.
 c. (44a) \Rightarrow (44b)

- (45) a. $\exists e \text{ Flew}(I, \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Star})$
 b. $\exists e \text{ Flew}(I, e) \wedge \text{To}(e, \text{Star})$
 c. (45a) $\not\Rightarrow$ (45b)

- (46) a. $\exists e \text{ Flew}(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Star})$
 b. $\exists e \text{ Flew}(e) \wedge \text{To}(e, \text{Star})$
 c. (46a) \Rightarrow (46b)

(44)에서 보는 것처럼 (44a)는 (44b)를 함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avidson식의 논리적 표시 (45a)는 (45b)를 함의하는 관계를 보여주지 못한다. 그러나 (45)와 같은 Davidson식의 의미표시를 (46)과 같은 신-Davidson식으로 수정한다면 (46)에서 보는 것처럼 (46a)는 (46b)를 함의하고 있음을 보일 수 있다.

이렇듯 신-Davidson식의 표기법을 도입하여 핵문의 논항을 분리, 기술함으로써, (40a)가 (40b)와 (40c)를 함의하는 관계를 기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4a)와 (44b) 사이의 목적어 생략에 따른 함의 관계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음을 보았다. 즉 신-Davidson식의 기술은 서술어의 논항을 분리하고 이를 사건과의 2항 관계로 기술한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Davidson(Neo-Davidsonian)식의 기술은 어휘 해체분석(decomposition analysis)과 유사한 것이며, (45a)와 (46a)는 동일한 의미표시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문과 수동문간의 함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 (47)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b.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 (48) a. My spaceship was flown to the Morning Star.
 b.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text{spaceship }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47a)는 수동문 (48a)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즉 (47a)의 사건구조를 아원자 명제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와 부가어 구조 $\text{To}(e, \text{morning-star})$ 로 해체분석 하더라도 (47a)의 능동문 아원자 명제 (47b)는 (48b)를 논리적으로 함의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49) a.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Rightarrow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b. $(p \wedge q \wedge r \wedge s) \Rightarrow (p \wedge k \wedge s)$

(49a)에서 처럼 핵 명제를 아원자 명제로 해체하더라도 수동문과 능동문 사이에 논리적 함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49b)의 논리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2.2 의미역에 의한 의미 표시

신-Davidson식의 의미표시가 함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만족할 만한 것은 되지 못한 경우도 있다. Kearns(2000)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능동문과 수동문 사이의 함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신-Davidson식의 기술의 문제가 노정된다는 것이다.

- (50)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b. My spaceship was flown to the Morning Star.
 c. (50a) \Rightarrow (50b)

즉 (50a)는 (50b)를 함의하고 있다. 그러나 (50a)의 의미표시를 신-Davidson 식으로 기술하면 (51a)와 같이 기술할 수 있고, (50b)의 의미표시는 (51b)와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51) a. I flew my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Rightarrow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b. My spaceship was flown to the Morning Star.

$\Rightarrow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text{spaceship }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그러나 (51a)의 의미표시와 (51b)의 의미표시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52)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Rightarrow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text{spaceship }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이렇듯 신-Davidson식의 의미 기술에 있어서 수동문과 능동문 사이의 함의 관계를 기술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수정하기 위해서 논항표현을 의미역으로 기술하는 방안이다.

(53) a. I flew spaceship to the morning star.

b. $\exists e(\text{Fly}(e) \wedge \text{Subject}(I, 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c. $\exists e(\text{Fly}(e) \wedge \text{Agent}(I, e) \wedge \text{Theme}(\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54) a. My spaceship was flown to the morning star.

b. $\exists e(\text{Fly}(e) \wedge \text{Object}(\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c. $\exists e(\text{Fly}(e) \wedge \text{Theme}(\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the morning-star}))$

즉 (53a)의 의미를 신-Davidson식으로 표기하면 (53b)와 같고, 이를 의미역 표기 (thematic roles notation)로 나타내면 (53c)와 같다. 즉 (53a)는 (54a)를 함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3b)는 (54b)를 함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53c)는 (54c)를 함의하는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

(55) $\exists e(\text{Fly}(e) \wedge \text{Agent}(i, e) \wedge \text{Theme}(\text{spaceship},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Rightarrow \exists e(\text{Fly}(e) \wedge \text{Theme}(\text{spaceship } e) \wedge \text{To}(e, \text{morning-star}))$

행위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기술할 수 있다면 상태동사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의 의미는 상태구조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서술어를 대별한다면 사건술어, 상태술어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위동사와 상태동사 사이의 차이는 사건의 시간적 변화 유무라 할 수 있다. 즉 사건은 시간적 변화를 초래하지만, 상태는 일반적으로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사건은 일반적으로 경계성(bound)을 가지고 있으나 상태는 경계성을 갖지 않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행위동사와 상태 동사가 갖는 시간의 변화와 경계성이라는 관점에서 이들 두 동사의 특성은 시간의 정점(culminate)과 상태의 유지(hold)라는 연산자를 도입함으로써 이들의 차이점을 명시할 수 있을 것이다.

(56) a. John buttered the toast.

⇒ ∃e(Buttering(e) ∧ Agent(John, e) ∧ Theme(toast, e) ∧ Cul(e, before now))

b. Brutus sat under the tree

⇒ ∃s(Under(s, the tree) ∧ Theme(Brutus, s) ∧ Hold(s, before now))

(5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행위동사의 경우에 있어서 Cul (Culminate)은 시간의 정점을 나타내고, 상태 동사는 시제는 정지 상태 이므로 Hold로 표시한 것이다. (56)과 같은 형식적 기술에서 행위 동사나 상태 동사는 항상 사건과 상태를 각각 논항으로 취하는 1항 술어라는 점이다. 행위동사의 시점(여기서는 시제)을 나타내는 연산자 Cul(Culminate)은 사건의 시점을 나타내고 상태 동사의 시점(시제)을 나타내는 연산자 Hold는 정지된 시간을 나타낸다. 이렇듯 시제를 나타내는 연산자 Cul과 Hold는 각각 사건(e)과 시간, 그리고 상태(s)와 시간을 논항으로 취하는 2항 술어이다.

아원자 의미기술 모형에 따라 핵문과 부가어를 수반하는 문장사이의 함의 관계는 물론이고, 능동문과 수동문사이의 함의 관계, 그리고 목적어 생략문의 함의 관계를 기술할 수 있음을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사건구조 의미론의 모형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59)에서 보는 것처럼 아원자 의미론은 자연언어의 어휘를 중심으로 각각의 어휘에 대한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역을 부여함으로써, 주어진 표현내에서 어휘의 의미에 대한 해석을 부여한다.

특히 동사를 사건이나 상태로 나타냄으로써, 이들 사건이나 상태의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역과의 관계를 함수표현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시제 연산자를 설정함으로써, 현재 또는 과거의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문법모형이다.

(59) 문법모형

Grammatical functional Operators(문법기능적연산자)

;Subject, Object, Time Adv, Space Adv, Complement

Thematic-role Operators (의미적 연산자) Agent, Theme,

Existential Operator (존재 연산자); ㄴ

Event(사건) ; e

State(상태) ; s

Tense Operator(시제연산자) ; Culminate, Hold

그러나 (59)의 문법모형에서는 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어휘가 갖는 명제적 함의 등의 문제를 기술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드러난다.

제 3 장 동사의 사건구조

명시적 양화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와 원형명사구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의 상적 의미가 상이함을 보았다. 동사가 취하는 논항의 성격뿐만 아니라 시제에 따른 논항의 성격이 변화하는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60) a. John eats an apple.

b. John ate apples.

(61) a. $\exists e(\text{Eat}(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text{Object}[\text{apple}, e] \wedge \text{Cul}(e, \text{now}))$

b. $*\exists e \{ \text{Eat}(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text{Object}[\text{apple}, e] \wedge \text{Cul}(e, \text{before now}) \}$

아원자 의미의 틀에 의하여 (60)의 각각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나타낼 경우 (60a)와 (60b)의 형식적 기술은 동일한 형식으로 기술되기 때문에, 과거 시제가 유발하는 지시 대상물의 부재 의미를 기술할 수 없다. 즉 (6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61a)와 (61b)의 의미적 차이는 동사 eat가 나타내는 시제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즉 먹는 사건 e가 현재 Cul(e, now)시점에서 발생하느냐 아니면 과거 Cul(e, before now) 시점에서 발생하였느냐의 차이를 제외하고는 (61a)와 (61b)의 의미는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시제의 변화에 따른 명사구의 의미는 대단히 큰 변화를 겪는다. 바꾸어 말하면 (60a)에서는 분명히 하나의 사과가 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사과가 완전하지 않은 사과라 할지라도 John이 사과를 먹고 있는 순간에는 사과가 존재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60b)에 있어서는 사과의 존재를 찾을 수 없다. 만일에 (60b)가 참이기 위해서는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60b)가 참이면서도 동시에 사과가 존재한다면 John은 사과를 먹지 않았거나, 먹었다는 것이 거짓인 경우이다.

이러한 사실은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데 있어서 동사가 나타내는 두 가지 이상의 구성요소를 수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면 더욱 명백히 알 수 있다.

(62) a. Lisa rudely departed.

b. Lisa departed in a rude manner.

c. Lisa's departure was a rude one (even though Lisa may not have acted in a rude manner while departing.)

Pustejovsky(1991)에 의하면 부사 rudely가 동사 departed를 수식하고 있지만, (62a)의 의미는 (62b)와 같이 떠나는 태도가 버릇없는 경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62c)와 같이 떠나는 태도는 건방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Lisa가 떠났다는 사건이 건방진 경우이다. 이렇듯 부사가 하나의 동사를 수식하면서도 중의적 의미해석이 가능한 것은 떠나는 행위는 떠나는 과정과 떠나고 난 마지막 상태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62c)의 해석이 가능한 경우는 부사 rudely가 사건의 마지막 상태(final state of the event- the state of having left)를 수식하는 데 반해서 (62b)의 의미는 떠나는 과정(process-the action and manner associated with departing)을 수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을 과정과 상태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앞에서 동사 eat는 시작점과 종결점을 갖는다고 주장할 수 있다. 즉 먹기 시작하는 시점의 먹는 행위와 먹는 행위가 끝났을 시점의 의미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더구나 현재 시제에 있어서는 행위의 진행만 간주되지만, 시작점과 종결점을 가질 수 있는 동사의 과거 시제형에서는 분명히 서로 상이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60b)의 의미는 (61b)와 같이 나타낼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양화 논리적 기술을 도입할 경우 더욱 분명해진다.

- (63) a. $\exists e[\text{Eat}(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now})]$
 b. $*\exists e[\text{Eat}(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before now})]$

(63a)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63b)가 비문법적이라는 사실은 존재 양화적 의미 $\exists y, (\text{apple}(y))$ 의 의미이다. (63b)에서 $\exists y, (\text{apple}(y))$ 가 나타내는 의미는 사과가 하나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먹는 사건(e)이 존재하며, John은 이 사건의 주어이고, apple은 이 사건의 목적어이며, 이 사건은 현재보다 앞선 어느 시점에서 발생하였다”로 해석된다. 이 경우 (63b)가 의미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과는 존재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63b)는 참이 될 수 없다.

(60b)가 나타내는 의미를 명료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63b)의 의미표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기술한다고 가정해 보자.

- (64) $\exists e[\text{Eat}(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before now}) \wedge \sim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64)와 같이 (63b)의 의미를 기술한다면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sim \exists \text{Object}(\text{apple}(y), e)]$

모순명제를 유발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p \wedge \sim p$ 라는 모순명제를 유발함으로 전체 명제는 모순명제가 된다. 따라서 (63b)를 (64)처럼 기술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영현(2008)에 따르면 (64)의 의미표시가 문제되는 것은 첫째, 사건구조 $\exists e[\text{Eat}(e)]$ 가 시제의 문제를 간과하였고, 둘째, 양화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시간과 상과의 관계가 간과되었다. 우선 시제논리와 양화논리 그리고 사건 구조적 의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60b)가 내포하고 있는 목적어 상쇄의 의미를 기술하는데 문제점이 노정된다. 결속자 $\exists e$ 는 사건 구조적 의미론을 도입한 경우이고, $\exists y$ 는 양화 논리적 의미론을 도입한 경우이며, Cul과 같은 결속자는 시제 논리체계를 도입한 것이다. (64)의 의미표시 가운데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now})]$ 는 “사과라는 어떤 대상물이 존재하며 그 대상물을 먹는 행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로 해석되며, $[\sim \exists y \text{ Object} [\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before now})]$ 는 “사과라는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먹는 행위는 과거의 사건이다”로 해석된다. 바꾸어 말하면 행위/과정 상이 나타내는 의미에 따라 “사과를 먹기 시작한 현재 시점에서 하나의 사과가 존재하고, 사과를 먹어 버린 시점에서 사과는 존재하지 않음”을 형식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면 동사 *먹다*가 나타내는 내포적 의미 즉 “사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 기술이 가능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 기술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노정된다. 먹기 시작한 사과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now})]$ 와 먹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사과 $[\sim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before now})]$ 의 수량적 의미 표시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와 수량 의미에 대한 부정적 의미표시 $\sim \exists y \text{ Object}[\text{apple}(y)]$ 는 수량에 대한 참과 거짓일 뿐 사과라는 개체의 부정이 아니다. 왜냐하면 양화사 부정의 법칙(Laws of Quantifier Negation, Wall:63)에 의하여 $\exists y$ 의 부정 $\sim \exists$ 는 수량의 부정을 나타낼 뿐 사과의 속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sim \exists y \emptyset \equiv \forall y \sim \emptyset$ 에서 보는 것처럼 특칭적 수량을 부정하더라도 수량의 의미만 부정될 뿐 속성을 부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특성에 따라 대상물 소멸의 의미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량 결속자 대신에 속성 연산자(property operator)를 도입하는 방안이다.⁶⁾

$$(65) \exists e[\text{Eat}(e) \wedge \text{Subject}(\text{john}, e) \wedge \iota y[\text{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before now})] \wedge [\sim \iota y \text{ Object}[\text{apple}(y), e) \wedge \text{Cul}(e, \text{now})]]$$

양화사 대신에 속성 결속자 ι (iota)를 도입함으로써 속성을 부정한다면 지시대상이 소멸된다.

6) 이영현(출간예정)에서는 아원자 의미론에 ι 연산자를 도입하고 있다.

따라서 (64)의 의미 기술을 (65)와같이 수정함으로써 동사가 나타내는 상의 의미를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속성 연산자 *iota*를 도입한다면 (6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먹는 사건이 *e*가 존재하며, 사과라는 어떤 대상물을 먹어버린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라면 현재에 사과라는 대상물은 존재하지 않는다”와 같이 과거 시제가 나타내는 상적 결과를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65)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동사의 시제에서 비롯된 논항의미의 변화는 사건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변화를 상적 변화 가운데 어떠한 관계로 파악하느냐의 문제와 (60a)와 (60b)의 상적 차이 즉 명시적 양화명사구를 갖는 경우는 종결성으로 간주하고 원형명사구를 갖는 경우는 비종결성으로 간주하는 문제는 또 다른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 가운데는 속성이나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사였다. 앞장에서 살펴본 사건구조 의미론의 중심 과제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상태 등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관한 형식적 틀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 가운데는 동사의 사건구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구조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운데는 이들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나 동사구와 관련된 부가어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3.1 수여동사의 사건구조

영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단순 사건이나 아니면 복합적 사건이나에 따라 상과 시제 등의 문제는 더욱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장에서는 영어의 수여동사와 국어의 복합동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의미적 특성을 사건과 관련지어 논의하려고 한다.

동사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한 노력은 어휘해체 분석에서 출발한다. 어휘 해체분석의 현상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요소가 영어의 수여동사와 국어의 복합동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66) a. John gave Mary a book.
b. John gave Mary a party.

(66)의 gave는 동일한 형태소이지만, 실제로 의미적 특성은 서로 상이한 것처럼 보인다. 예컨대 (66a)의 gave는 단순히 book을 Mary에게 전달한 사건일 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66b)의 gave가 갖는 의미는 직접적인 전달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book과 party는 그 의미적 특성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책은 단순한 개체로서 전달이 가능하지만, party는 단순한 전달의 개체가 아니다. 따라서 (66a)의 gave와 (66b)의 gave는 동일한 해석이 아니 것으로 보인다.

- (67) a. John passed a book to Mary.
 b. John held a party and gave some mental benefit to Mary.

이렇듯 (67)의 gave는 동일한 동사이지만, 다음에 오는 직접목적어에 따라 to-dative로 전환되느냐 아니면 for-dative가 성립되느냐가 결정된다. 즉 (67)의 각각을 이른바 여격변형(dative shift)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 (68) a. John gave a book to Mary
 b. John gave a party for Mary.

(68)에서 보는 것처럼 to-dative이든 for-dative이든 실현되는 통사적 특성은 수여 동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to-dative 변형은 수여동사의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for-dative가 적용되는 경우는 문맥이나 수여동사에 관여하는 목적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양인석(2008)에서는 for-dative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 (69) a. John buys me book
 b. John buys a book and gives it to me

- (70) a. John makes me a kite
 b. John makes a kite and gives it to me

- (71) a. John types me a letter
 b. John types a letter and give it to 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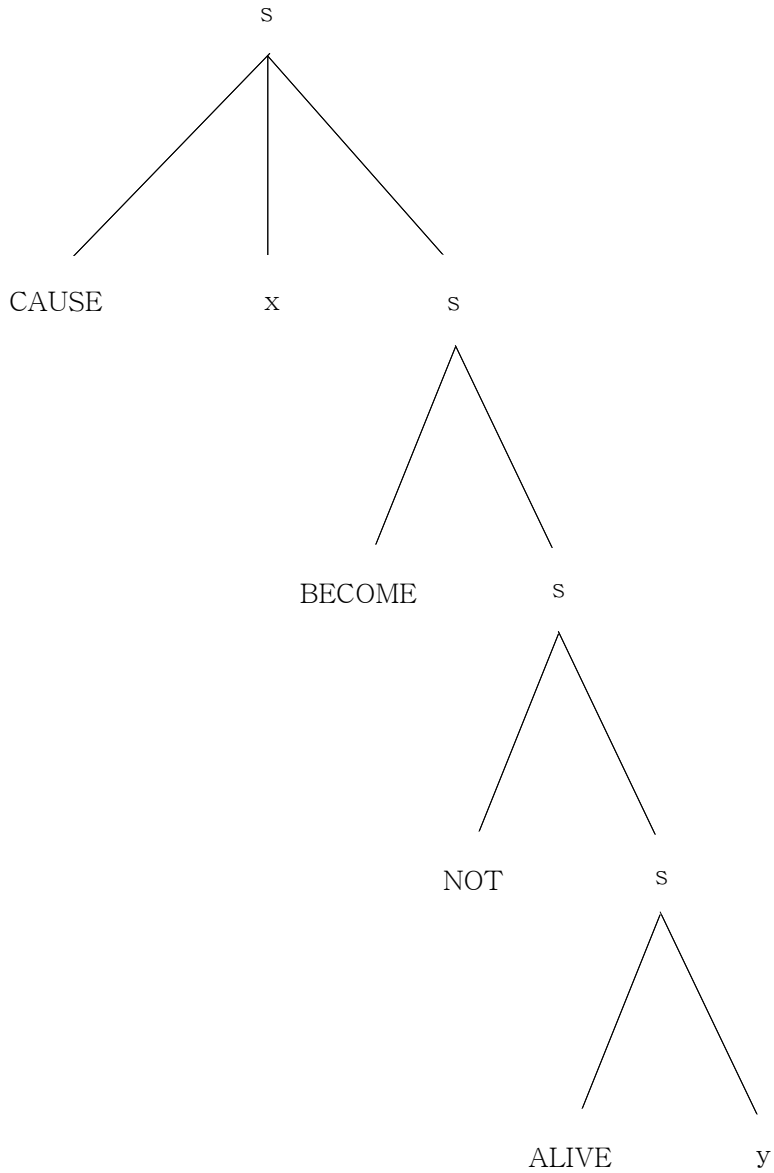
- (72) a. John gave Mary a party.
 b. John gave Mary a black eye
 c. John gave Mary a broken arm.
 d. John gave Mary a cold
 e. Mary gave John a broken arm.
 f. Mary gave John a black eye
 g. Mary gave John a kiss

(69)에서 (72)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이른바 수여 동사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동사들의 의미는 제1동사와 제2동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예컨대 (69a)의 buy에는 buy의 의미 외에도 give의 의미가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66a)의 give는 give의 본래적 의미만을 갖는데 반해서 (66b)의 give는 held and give의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의미해석이 가능한 것은 바로 *buy*라는 동사의 의미를 해체분석하면 이른바 상위VP와 하위VP로 구분된다는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MaCawley(1968)에 의하면 상위VP(the upper VP)는 사건의 과정(process)을 나타내고 하위VP(the lower VP)는 핵심사건(core event)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위VP와 하위VP는 하나의 동사를 상위의 의미역(the upper semantic zone)과 하위의 의미역(the lower semantic zone)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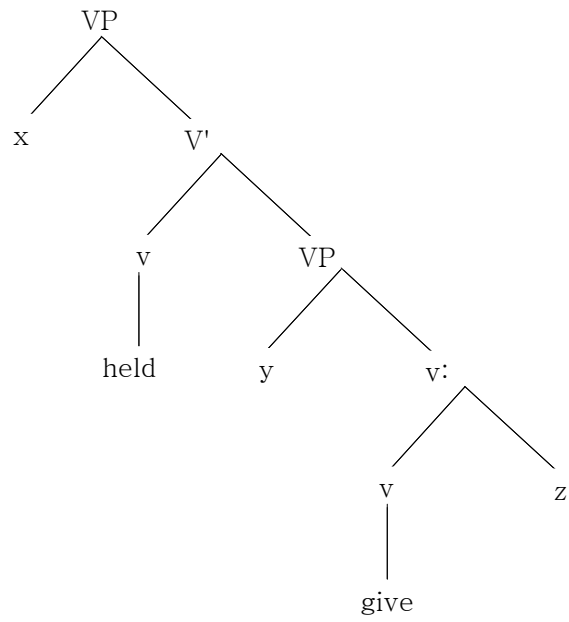
이와 같이 하나의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현상을 상위 의미역과 하위 의미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은 MaCawley(1968)에서 제시한 어휘해체 분석에 근간을 두고 있다.

(73) ki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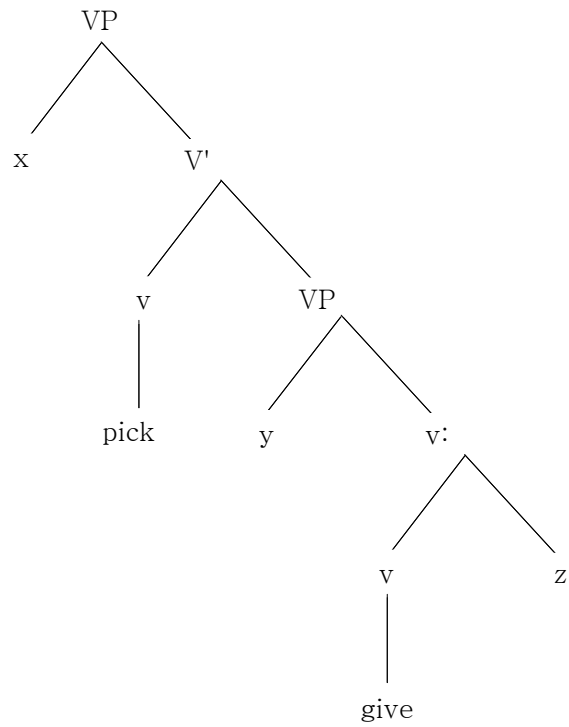


Kill의 의미를 (73)과 같이 해체 할 수 있다면 give와 같은 수여동사의 의미 역시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74) give a party



(75) give a book



위의 수형도에서 보는 것처럼 *give a book to Mary*는 물론이고 *give a party for Mary* 역시 제 1 의미역과 제 2 의미역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give*의 의미를 단순한 pass의 의미 즉 *건네 주다*로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give*의 본래 의미는 바로 *건네다*와 *주다*라는 두 개의 동작이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V1 + V2)로 간주할 수 있다. 여기에서 *give*의 의미는 V1= *건네다*, V2 = *주다*로 분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건네 주다*라는 사슬동사로 해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give*의 행위를 전 행위 후행위로 분석해 보면 이는 사슬동사의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즉 *give*의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손이 책을 쥐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고 다음으로 메리에게 이 책을 전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이다. 이를 국어에서는 제 1동사 *건네다*와 제 2동사 *주다*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사 *give*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영어의 거의 모든 동사의 의미는 두 개의 의미영역을 가진 것으로 해석된다.

(76) a. John sings me Arirang

b. John sings Arirang and gives a certain mental benefit to me

(77) a. John does me a favor

b. John does a favor and give a certain mental benefit to me

그러나 *give*와 같은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을 어휘해체 분석하기 위해서 Hale and Keyer(1993) 등에서는 모든 동사의 의미를 상위동사구(upper VP) 의미부분과 하위동사구(lower VP) 의미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예컨대 *kill*의 의미를 해체 분석할 때 하나의 동사를 두개의 명제표현으로 분석한 것과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분석한다. 다만 상위 동사구와 하위동사구로 구분하는 것과 *kill*에서 상위문과 하위문의 관계로 분석한 것은 의미표시의 형식상의 차이 일 뿐, 분석 방법에 있어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의 동사를 상위동사구와 하위동사구로 분석한 것은 논항의 상호관계는 물론이고 부사와 관련된 상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상위의 VP를 수식하는 경우와 하위의 VP를 수식하는 경우를 구별한다면 부사가 수식하는 영역의 차이를 명료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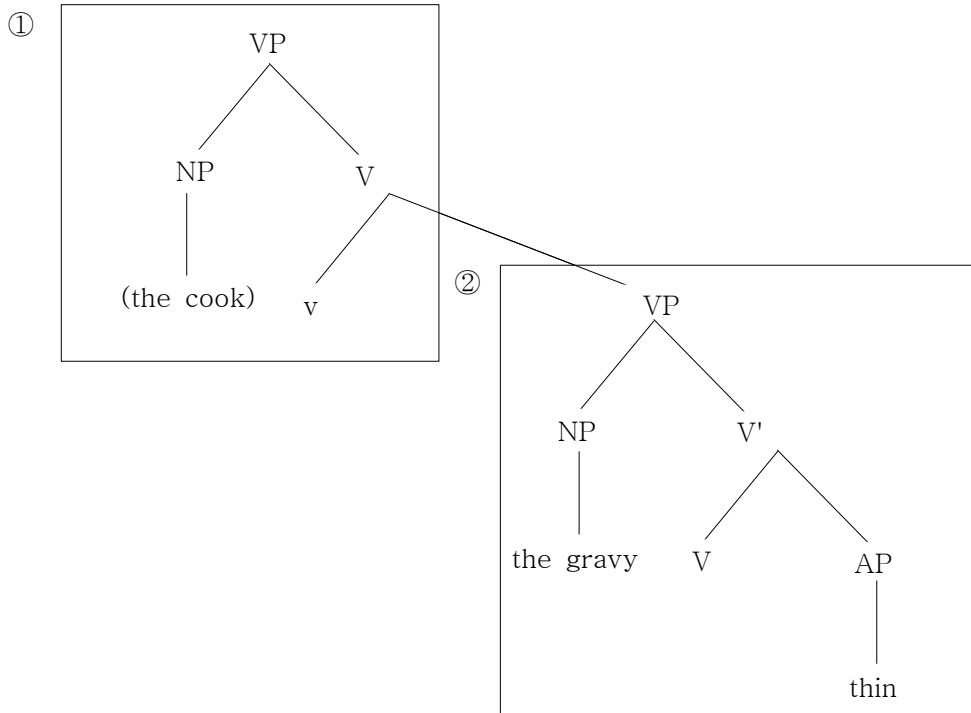
이러한 어휘해체 분석에 대한 새로운 평가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나 사건구조를

각각 상위의미영역(the upper semantic zone)과 하위의미영역(the lower semantic zone)으로 구분함으로써 보다 명료하게 동사의 의미와 부사와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Parsons(1990)에서 제시한 사건 구조적 상위의미 영역과 하위의미 영역을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 (78) a. x closes the door
 b. X CAUSE [THE DOOR BE-CLOSED]
 c. $(\exists e)[\text{Cul}(e) \ \& \ \text{Agent}(e,x) \ \& \ (\exists e')[\text{Cul}(e') \ \& \ \text{Theme}(e',\text{door}) \ \& \ \text{CAUSE}(e, e') \ \& \ (\exists s)[\text{Being-closed}(s) \ \& \ \text{Them}(s,\text{door}) \ \& \ \text{Hold}(s) \ \& \ \text{Become}'(s)]]]$

(78)와 같은 아원자적 의미 기술방안에 따라 보통 행위동사의 의미를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Tenny(2000)에서는 일반 동사의 의미를 두개의 의미영역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79) a. The cook thinned the grav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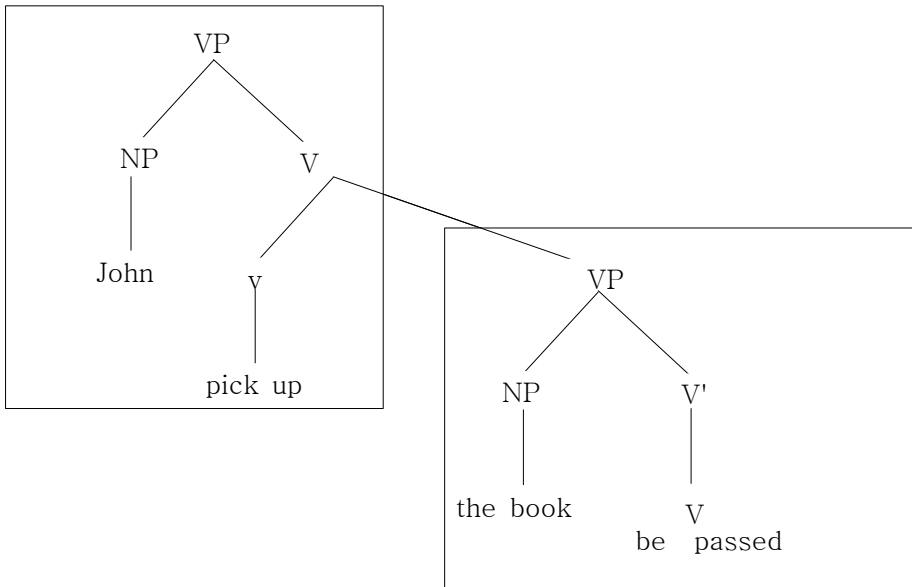


- b. $(\exists e)[\text{Cul}(e) \ \& \ \text{Agent}(e,x) \ \& \ (\exists e') [\text{Cul}(e') \ \& \ \text{Theme}(e', \text{gravy}) \ \& \ \text{CAUSE}(e, \ \& \ (\exists s) [\text{Being- thinned}(s) \ \& \ \text{Them}(s, \text{gravy}) \ \& \ \text{Hold}(s) \ \& \ \text{Become}(e',s)]]]$

(79)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①] 부분은 상위 의미영역이고 [그림②] 부분이 하위 의미영역이다. 이와 같이 의미영역을 구분한다면 영어와 국어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현상을 보다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수형도는 하나의 동사를 두 개의 의미 부분으로 구분한 것이다. 원래 Hale and Keyser(1993)가 제시한 예는 *thin*이라는 동사는 요리사가 고기국물의 농도를 묽게 하였다라는 단순 구조가 아니라, 제 1동사에서 요리사의 국물 끓이는 행위를 두 개의 행위로 분류한 것이다. 예컨대 *kill*을 해체 분석한 것처럼 $x \text{ cause } y$ 의 의미영역과 $y \text{ become to die}$ 로 해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석하는 경우이다. 이와 같이 모든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을 $x \text{ cause } y$ 의 영역을 제1의미지역(semantic zone)으로 간주하고 $y \text{ become to die}$ 의 영역을 제2의미지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의미지역의 구분은 다음에 논의할 상과의 연관성을 갖는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영어 수여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과 사건구조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80) John gave mary a book



- (81) a. x give Mary a book
 b. X PICK UP [THE book BE-passed over]
 c. $(\exists e)[\text{Cul}(e) \ \& \ \text{Agn}(e,x) \ \& \ (\exists e')[\text{Cul}(e') \ \& \ \text{Theme}(e',\text{door}) \ \& \ \text{CAUSE}(e, \ \& \ (\exists s)[\text{Being-closed}(s) \ \& \ \text{Them}(s,\text{door}) \ \& \ \text{Hold}(s) \ \& \ \text{Becomd}(e',s)]]]]$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동사의 사건구조를 설정해야 할 당위성과 동사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이 서로 상이한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역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임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은 국어와 영어 동사의 의미적 관계를 보다 명료하게 기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3.2 복합동사의 사건구조

국어의 복합동사는 사슬동사와 형태적 특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구별이 용이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 (82) a. 철수가 뛰어 가다
 b. 철수가 먹어 가다.

(82)의 제1동사와 제2동사의 결합구조는 동일하다. 그러나 의미적으로 (82a)와 (82b)의 사건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숙희(1992), 이영현(1996) 등에서는 Sebba(1987)에서 정의한 사슬동사의 통사적 특성을 토대로 (83)과 같은 국어 사슬동사에 일반적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83) 국어 사슬동사의 일반적 특성
- a. $[V_1 + /-어/ + V_2]$ 구조를 갖는다.
 - b. V_1 과 V_2 의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 c. 두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간주된다
 - d. V_1 을 부사화해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
 - e. $X \cap Y \neq \emptyset$ (단 X는 V_1 의 외연, Y는 V_2 의 외연임)

(83)의 특성에 따라 다음의 동사들은 사슬동사라 할 수 있다.

- (84) a. 철수가 학교로 뛰어 갔다.
b. 철수가 빌린 책을 돌려 주었다.
c. 철수가 상황을 자세히 살펴 보았다.

예컨대 (84a)의 뛰어가다를 사슬동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형태상 /어/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둘째 뛰다와 가다 사이에는 어순이 고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음의 구조는 이른바 복합동사라 할 수 있다.

- (85) a. 철수가 떡을 먹어 보았다.
b. 철수가 떡을 먹어 주었다.
c. 철수가 떡을 먹어 가다.
d. 철수가 가(서) 먹다.

즉 (85a)역시 제 1 동사와 제 2 동사의 결합이라는 점에서는 사슬동사와 동일하지만, 제1동사 먹다의 논항은 분명하지만, 제 2 동사의 보다는 논항을 갖지 못한다. 바꾸어 말하면 먹어 보다, 먹어 주다, 먹어 가다 등은 분명히 논항을 갖지 않는 이른바 복합동사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합동사란 주동사와 조동사가 결합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셋째 뛰어 가다는 하나의 행위인데 반해서 먹어 가다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조동사가 행위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먹는 행위와 가다가 나타내는 행위는 분리할 수 있는 행위이다. 예컨대 가다의 의미를 지속이나 진행의 뜻을 갖는 경우라 한다면, 먹는 행위와 그 행위의 반복 또는 진행은 분리된 행위라 할 수 있다.

넷째, 사슬동사 뛰어 가다에 있어서는 제 1동사를 부사화 해도 의미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반면 조동사 복합 술어인 먹어 가다에 있어서는 부사화가 불가능하다.

- (86) a. 철수가 뛰어 가다
b. 철수가 뛰어서 가다.

- (87) a. 철수가 먹어 가다.
 b. *철수가 먹어서 가다.

즉 (86b)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87b)가 비문법적인 것은 조동사 복합 술어인 경우 제 1동사를 부사화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슬동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동사의 외연의 교가 공집합이 될 수 없지만, 조동사 복합 술어의 경우에는 두 동사의 외연의 교가 공집합이 된다.

- (88) a. 뛰다 = {a, b, c}
 b. 가다 = {a, b, c, d}
 c. {a, b, c} ∩ {a, b, c, d} = {a, b, c}

- (89) a. x를 먹다 = {a, b, c} or {b | <a, b> ∈ a 먹다 b}
 b. 가다 = ∅
 c. {a, b, c} ∩ ∅ = ∅

바꾸어 말하면 *뛰어 가다*에 있어서는 뛰는 대상과 가는 대상이 존재한다. 따라서 *뛰다*와 *가다*의 외연은 (88c)에서 보는 것처럼 공집합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떡을 먹어 가다*에 있어서는 떡을 먹는 개체는 분명히 존재한데 반해서 *가다*가 지시하는 외연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외연의 교는 공집합이 된다.

이렇듯 조동사 복합 술어와 사슬동사 사이의 상이점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90) a. 먹어 주다 → *먹어서 주다,
 b. 먹어 보다 → *먹어서 보다.

- (91) a. 사 주다 → 사서 주다
 b. 살피 보다 → 살피서 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국어의 복합동사와 사슬동사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국어의 사슬동사는 두 동사가 각각 명시적 논항을 갖는 다는 점에서 어휘해체 분석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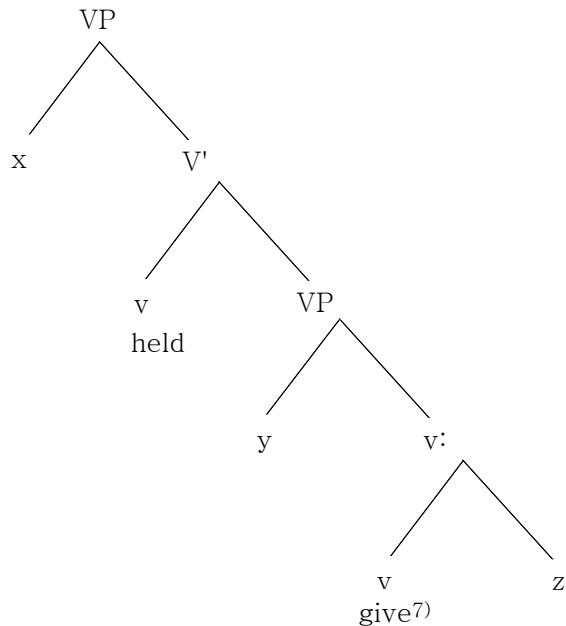
이 될 수 없다.

어휘해체 분석 대상이 되는 복합동사의 문제는 영어 수여동사의 해체분석과 대단히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다.

- (92) a. 메리는 존에게 아리랑을 불러 주었다.
- b. 존은 메리에게 연을 만들어 주었다
- c. 존은 메리에게 파티를 열어 주었다.
- d. 존은 메리의 눈을 멍들게 해 주었다.
- e. 존은 메리의 팔을 부러 뜨려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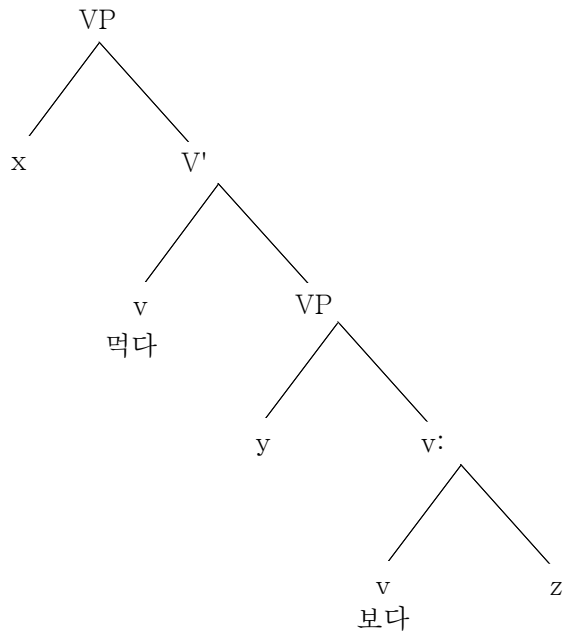
위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제1동사의 논항은 분명하지만, 제2동사의 논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컨대 영어의 *sing*을 국어에서는 *불러 주다*로 해석되는 경우 이는 어휘해체 분석을 적용한 것과 같다.

(93) John gave Mary a party



7) 여기에서 *give*는 *give a certain mental benefit*로 해석됨

(94) a. 철수는 떡을 먹어 보았다.



먹어 보다, 먹어 주다, 먹어 가다 등은 모두 복합동사이다. 이들 각각의 의미는 서로 상이하다고 하더라도 상위 의미역과 하위 의미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두 개의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독립적 행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일련의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동사와 동일하게 다룰 수 있다. 그러나 *kill*의 의미를 상위 의미영역과 하위의 의미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들 복합동사의 의미는 표면상으로 상위 의미영역과 하위 의미영역의 구분이 표현상으로 표시된 것과 같다.

(95) a. A bird flies.

b. 새가 날아간다.

(95a)의 *fly*는 제 1 의미지역과 제 2 의미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CAUSE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과 CORE EVENT를 나타내는 부분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바꾸어 말하면 국어의 해석 가운데 날다는 상위 의미영역의 해석을 나타내고 가다는 하위 의미영역을 나타낸다⁸⁾. 이와 같이 상위 의미영역과 하위 의미영역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

은 다음의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 복합동사라 할지라도 이른바 동족목적어를 갖는 경우가 있다.

(96) a. John let himself fall

b. 철수가 넘어졌다.

(96a)의 경우에 있어서는 명시적인 동족목적어인 채귀대명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동족목적어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족목적어가 존재하더라도 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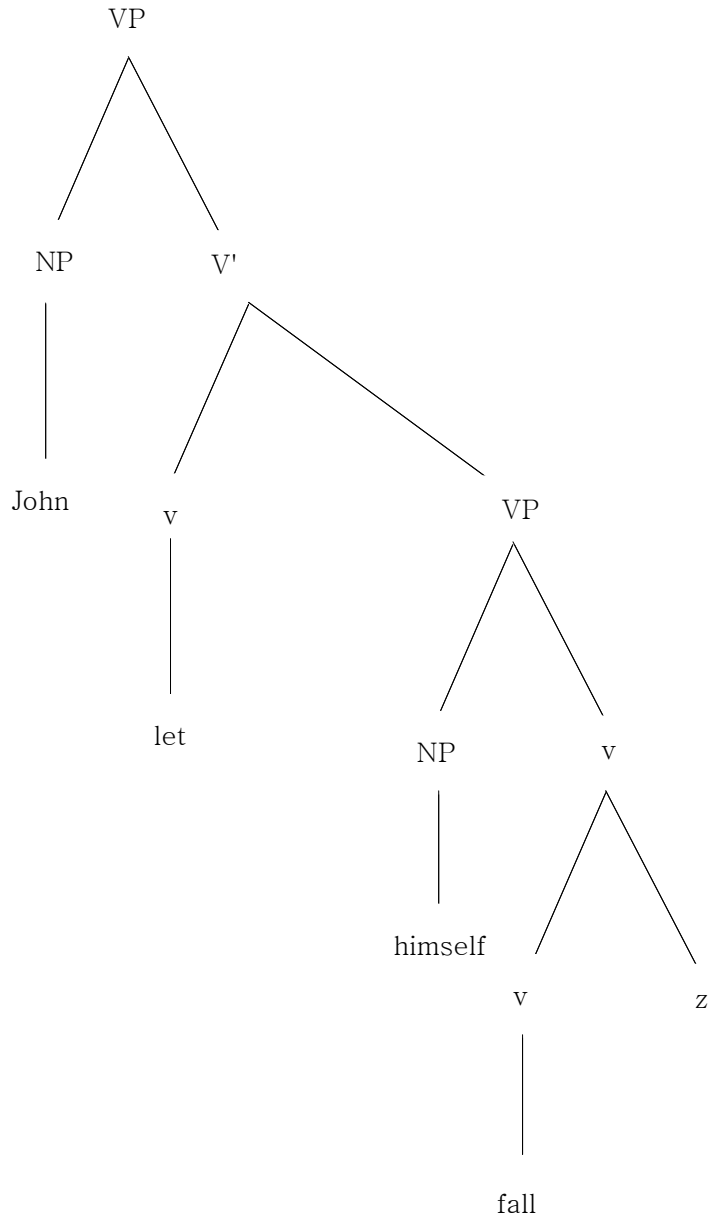
(97) 철수는 자신이 넘어졌다.

이렇듯 동족목적어가 있는 표현은 동족목적어를 생략한 표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97)은 (96b)를 함의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함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상위의미영역과 하위의미영역을 구분하여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 이영현(출간예정) 사건구조와 상에 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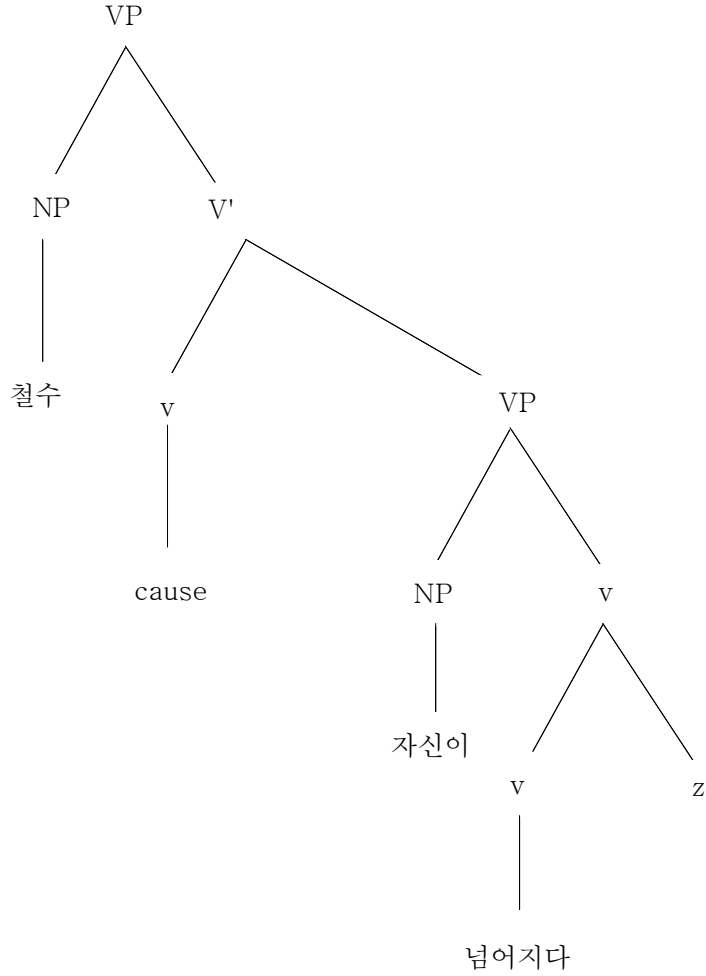
(98) John let himself fall



(98)은 영어 동족목적어가 있는 문장의 수형도이고 (99)는 국어의 수형도이다. 이들 수형도에 따라 의미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동족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의 의미는 동족목적어를 생략한 문장과 동일한 의미 기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동족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문장은 동족목적어가 생략된 문장을 함의한다.

(99) 철수는 자신이 넘어졌다.



- (100) a. $\lambda P P(\text{john}) \lambda y \lambda x \exists e, e' [\text{LET}(x, e) \ \& \ \text{agent}(e, e') \ \& \ \text{FALL}(e'y) \ \& \ \text{Patient}(e', y) \ \& \ e = e']$
 b. $\exists e, e' [\text{LET}(\text{john}, e) \ \& \ \text{agent}(e, \text{john}) \ \& \ \text{FALL}(e', \text{john}) \ \& \ \text{Patient}(e', \text{john}) \ \& \ e = e']$
 c. $\exists e' [\text{FALL}(e', \text{john})]$

- (101) a. $\lambda P P$ (철수) $\lambda y \lambda x \exists e, e' [LET(x, e) \& agent(e, e') \& FALL$
 $(e'y) \& Patient(e', y) \& e = e'$
- b. $\exists e, e' [LET(철수, e) \& agent(e, 자신) \& FALL(e', 철수) \& Patient$
 $(e', 자신) \& e = e'. \exists e' [FALL(e', 철수)]$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영어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국어의 복합동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와 동일하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논의의 바탕에는 영어 동사의 의미는 해체분석을 통한 사건구조로 기술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제 4 장 사건구조와 상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영어의 수여동사 그리고 국어의 복합동사의 의미는 동일한 문법모형에 의하여 기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사가 나타내는 좀 더 구체적인 의미 현상 가운데는 사건이 성립하기 이전의 과정뿐 만이 아니라 사건의 내부구조와 관련된 문제들 이른바 상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Vendler(1967)에서는 동사가 나타내는 변화, 지속성, 그리고 결속성 등에 의하여 동사를 분류하고 있다. 즉 Vendler(1967)에서는 제시한 상적 현상에 따라 성취(Achievement)동사, 완수(accomplishment)동사, 상태(state), 그리고 행위/과정(activity/process)의 4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특히 성취동사와 완수동사가 지니고 있는 상적 특성은 변화(change)와 결속점(bound)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공통적 특성이다. 다만 이들 두 동사가 갖는 상적 특성의 상이점은 지속성(duration)의 유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상태(state)동사와 행위(activity/process)동사는 결속점이 없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취 동사와 완수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동사 자체가 갖는 특성이라기보다는 부사에 의하여 동사의 상적 의미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첫째로 동사의 상적 의미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공기하는 시간부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102) 성취(Accomplishment)동사

- a. He can eat a bean pie in 60 seconds.
- b. They built the barn in two days.
- c. John walked to town in 50 minutes

(103) 완수(Achievement)동사

- a. He recognized her in a minute or so.
- b. John noticed the marks on the wallpaper in five minutes
- c. John lost his keys in three days.

성취동사와 완수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경계성(bound)에 좌우된다. (102)는 물

론이고 (103)의 예문에서 각각의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부사 *in x time*의하여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은 결국 경계성을 지닌다. 예컨대 (102a)의 *can eat a bean pie*라는 사건은 시작점이나 종결점을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경계성이 없는 이른바 비종결성(atelic)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단순한 행위나 과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시간부사 *in 60 seconds* 라는 시간성이 행위의 종결점을 말해줌으로써 경계성이 드러난다. 그러나 동일한 시간 부사라도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for x time*이라는 시간 부사와 공기하는 경우에는 *can eat a bean pie*라는 사건이 기간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님으로 비문법적 표현이 된다.

(104) 성취 동사

- a. *He can eat a meat pie for 60 seconds.
- b. *They build the barn for two days.
- c. *John walked to town for 50 minutes

(105) 완수 동사

- a. * He recognized her for a minute or so.
- b. *John noticed the marks on the wallpaper for five minutes
- c. *John lost his keys for three days.

(104)는 물론이고 (105)가 비문법적인 것은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기간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이 'in x time'라는 시간 부사와 공기함으로써 동사 자체의 사건에 경계성이 주어지고 따라서 이들 시간 부사를 포함하고 있는 동사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경계성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사가 시간부사에 의하여 상적 의미가 결정되는 현상 외에도 목적어에 의하여 상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Verkyul(1972), Dowty(1979), van Vorst(1988), Tenny(1994) 등에서는 동사가 사건의 상적 분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의 논항이나 논항의 위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Tenny(1994)에서는 동사의 내부논항이 동사의 상적 분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106) Verb particle

- a. Terry thought for an hour /*in an hour
- b. Terry thought up an answer in an hour/ *for an hour

(107) Resultative

- a. Terry ran for an hour/*in an hour
- b. Terry ran us ragged in an hour/*for an hour

(108) Cognate object

- a. Terry sing for an hour/ *in an hour
- b. Terry sang the ballad for an hour /in an hour

(109) X's way construction

- a. Terry sang for an hour/*in an hour
- b. Terry sang her way to the Met in 10 years/*for 10 years

위의 (106)~(109)의 예는 직접목적어에 의하여 사건의 경계성(delimiting)이 드러나고 있다. 시간부사 *in X time*에 의해서 경계성이 나타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동사의 직접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성 동사란 종결점(endpoint)을 가지고 있는 요소를 말한다. 그런데 반해서 시간부사 *for X time*의 수식을 받는 동사구는 비 경계성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부사 *for x time*가 동사구를 수식하는 경우 (104)와(105)에서는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되었으나 (106)~(108)에서는 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되는 것은 전자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있기 때문인데 반해서 후자의 경우에는 목적어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시간 부사 뿐만이 아니라 목적어에 의해서도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결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성취상에서는 물론이고 완수상에서도 *in x time* 부사 수식 구문과는 공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가 경계성(bound)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런데 반해서 성취상이나 완수상에 *for x time* 부사 수식구문과 공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들은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즉 성취 동사와 완수동사가 갖는 상적 의미의 공통성이 바로 경계성에 근거한다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경계성

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종결성(telic)과 비종결성(atelic)에 의하여 사건의 상적 의미를 기술하는 것이 더 간편한 일이다. 바꾸어 말하면 시간부사나 목적어의 유무는 결국 사건의 종결성과 비종결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건의 상적 의미는 결국 종결성과 비종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경계성과 비경계성에 의하여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가 종결성이냐 아니면 비종결성이냐를 형식적으로 기술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된 것은 아니다. Verkuyl(1993)에 의하면 종결성은 임의의 속성 α 를 가진 논항이 있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⁹⁾

- (110) a. Kim ate some apples.
- b. Pat drank too much beer.
- c. Robin read two books.
- d. John built a house

- (111) a. Kim ate apples.
- b. Kim drunk beer.

예문 (110)과 (111)의 차이점은 속성 α 의 유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110a)의 some apples는 속성 α 이다. 그러나 (111)의 경우에 있어서는 ate apples에서 apples는 속성을 나타내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ate apples는 하나의 서술어이다. 즉 명사구라 할지라도 목적어로서 논항 기능을 하는 경우와 논항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112) a. John ate the lunch.
- b. John ate.

- (113) a. John ate the bananas.
- b. John ate.

예컨대 (112a)는 (112b)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113a)와 (113b)는 동일한

9) Telic interpretation can only emerge in the context of a direct argument with property α (Verkuyl 1993)

의미로 해석되지 않는다. 바꾸어 말하면 (112a)의 *the lunch*는 *ate*의 논항으로서 자격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112a)와 (112b)의 의미는 동일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반해서 (113a)의 *the bananas*는 *ate*의 논항표현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112a)의 *ate some apples*는 속성을 가진 서술어라고 할 수 있고, (111a)의 *ate apples*는 단순한 서술어로서 논항표현을 갖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결성을 결정하는 것은 통사적으로는 양화명사구가 있는 경우이고, 비종결성을 결정하는 것은 집합 명사나 원형 복수명사가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

- (114) a *John ate a ginger cookie for hours
b. John ate a ginger cooker in 10 minutes.
- (115) a. John ate gingerbread for hours.
b. *John ate gingerbread in 10 minutes.
- (116) a. John ate ginger cookies for hours.
b. *John ate ginger cookies in 10 minutes.

(114a)가 비문법적인 것은 명시적 양화명사구 *a ginger cookie*와 *for x time* 부사와 공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반해서 (114b)가 문법적인 것은 명시적 양화명사구와 경계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15a)가 문법적인 것은 *gingerbread*는 명시적 양화명사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비경계성을 나타내는 *for x time*라는 부사와 공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6a)가 문법적인 것은 원형명사구와 함께 쓰이는 동사구는 명시적 논항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경계성을 나타내는 *for x time*이라는 부사와 함께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6c)가 비문법적인 것은 경계성을 나타내는 *in x time*이라는 부사와 *ginger cookies* 라는 비논항 표현과 함께 쓰였기 때문이다.

이렇듯 동사가 나타낼 수 있는 종결성과 비종결성은 목적어의 특성뿐 아니라 공기하는 부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 같이 동사구가 내부논항을 갖는 경우, 내부논항은 곧 양(quantity)으로 해석되는데 반해서 내부논항을 갖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동사가 명시적 수량양화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경우

는 동사의 특성에 관계없이 경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았다. 이와는 달리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경우는 물론이고 목적어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목적어가 명시적 논항의 기능을 하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행위나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렇듯 동사의 상적 의미가 목적어에 의하여 경계성을 갖는 경우와 목적어의 유무에 관계없이 행위나 과정만을 나타내는 경우를 비경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곧 경계성과 비경계성의 형식화를 위한 논거를 제시할 수 있다.

(117) a. John read the book in two hours.

b. $\exists e[\text{quantity}(e) \ \& \ \text{originator}(\text{john},e) \ \& \ \text{subject-of-quantity}(\text{the book},e) \ \& \ \text{read}(e)]$

(117)의 (e)는 동사 read의 논항일 뿐 만 아니라 동시에 quantity의 논항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사건(e)은 읽는 행위이며 동시에 읽는 양이 존재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읽는 행위와 양의 주어지면 경계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17b)와 같은 형식적 기술은 경계성의 의미를 사건구조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는 달리 목적어의 유무에 관계없이 명시적 논항표현을 갖지 않는 경우는 단순한 행위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즉 행위나 과정만을 나타내는 경우 행위나 과정에 경계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동사가 갖는 비경계성이라는 상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118) a. John built the houses.

b. $\exists e[\text{activity}(e) \ \& \ \text{originator}(\text{john},e) \ \& \ \text{participant}(\text{the house}, e) \ \& \ \text{build}(e)]$

(118a)의 의미는 built의 명시적 논항은 the houses가 될 수 없다. 즉 (118a)의 의미는 “존은 집을 지었다”라는 행위나 과정만을 기술하고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118a)의 의미를 (118b)와 같이 기술할 때, 사건(e)은 build하는 행위나 과정이며 동시에 그 사건은 바로 행위(activity)로서 사건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행위나 과정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경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를 비중결성(atelicity)을 나타낸다.

이렇듯 동사가 경계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명시적 논항을 갖는 경우로서 행위나 과정이 논항에 의하여 경계성이 들어나는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계성을 사건구조 의미로 기

술할 경우에는 사건의 함수자인 양(quantity)의 논항이며 동시에 동사의 논항으로 기술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동사가 비경계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목적어의 유무에 관계없이 명시적 논항을 갖지 못하는 경우임으로 단순한 행위나 과정을 나타낼 뿐이다. 따라서 비경계성을 사건구조의미로 기술할 경우에는 사건의 함수자인 행위(activity)의 논항이며 동시에 동사의 논항으로 기술하는 방안이다. 이렇듯 전자는 동사가 나타내는 경계성의 상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는 형식이고 후자는 동사가 나타내는 비경계성의 상적 의미를 기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국어의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19) a. 철수는 100리 길을 하루 종일 걸었다.

b. $\exists e[\text{수량}(e) \ \& \ \text{행위자}(\text{철수},e) \ \& \ \text{양의 주체}(100\text{리}, e) \ \& \ \text{걷다}(e)]$

(120) a. 철수는 길을 걸었다.

b. $\exists e[\text{행위}(e) \ \& \ \text{행위자}(\text{철수},e) \ \& \ \text{대상}(\text{길}, e) \ \& \ \text{걷다}(e)]$

(119a)는 100리라는 논항과 하루 종일 이라는 논항의 의하여 걷는 행위의 경계가 정해지는 경우로써 이른바 경계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반해서 (120a)의 의미는 길이라는 보충어(동족목적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걷는 행위만을 나타내는 이른바 비경계성의 상적 의미를 보이고 있다. 즉 (12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건은 행위일 뿐이고, 그 행위는 걷는 사건일 뿐이다. 따라서 비경계성의 상적 의미를 사건구조로 기술한 것이다.

제 5 장 부사의 사건구조

동사가 나타내는 상적 의미는 동사 자체의 의미적 특성 뿐 만이 아니라 이들 동사와 함께 쓰이는 목적어나 시간부사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렇듯 부사는 동사의 상적 의미를 결정하는 중요한 논항이 된다는 사실 외에도 이들 부사의 유무에 따른 함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전통적으로 술부부와 문장부사는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 각각의 부사가 취하는 논항의 범주가 무엇이나에 의하여 범주를 설정하였다. Jackendoff (1972)는 부사는 문장을 수식하는 이른바 향 화자 부사(speaker-oriented adverb; *frankly, unfortunately*) 및 향 주어 부사(subject-oriented adverb; *carefully, clumsily*) 그리고 태도부사(adverbs of manner; *eloquently*), 시간부사(adverb of time; *infrequently*), 정도부사(adverb of degree; *completely*), 그리고 초점부사(focusing adverb; *merely, utterly*)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러한 분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술부부는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범주를 수식하는 데 반해서 문장부사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부사라는 데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문장 부사 가운데는 문장만을 논항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제 3의 요소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 (121) a. John walks slowly
b. John can walk possibly.
c. Luckily today is fine.
d. Only John can do it.

(121a)의 *slowly*는 동사 *walk*를 수식한다는 점에서 술부부사라 할 수 있으며, (121b)의 *possibly*는 문장 *John can walk*를 논항으로 취한다는 점에서 문장부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21d)의 *only*는 *John*을 수식한다는 점에서 술부부사로 간주하였다.¹⁰⁾ 따라서 (121a)와 (121b)의 논항구조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0) 여기에서 말하는 술부부사(predicate adverb)란 문장 이외의 모든 요소를 지칭하는 경우로서 명사를 수식하는 부사라 할지라도 술부부사로 간주하고 있다.

- (122) a. (Slow(walk))(j)
 b. Possible(Walk(j))

(122a)의 술부부사 *slow*는 동사 *walk*를 논항으로 취하는 데 반해서 (122b)의 *possible*은 *Walk(j)*을 논항으로 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121c)의 *luckily* 역시 문장 *today is fine*을 논항으로 취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 (123) * Lucky(Fine(t))

그러나 (122c)의 *luckily*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luckily*는 문장에 대한 서술어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124) a. It is possible that John can walk.
 b. That John can walk is possible.

- (125) a.? It is lucky that today is fine.
 b.?That today is fine is lucky.

(124)의 두 표현이 문법적인데 반해서 (125)의 두 표현은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행/불행을 평가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행/불행이 아니라 화자나 주어의 입장에서 본 행/불행이다. 따라서 *luckily*와 같은 부사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문장부사가 아니라 화자와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이른바 향 화자 부사(speaker-oriented adverb)이다

- (126) a. It is possible that John can walk.
 b. That John can walk is possible.

- (127) a.? It is lucky that today is fine.
 b.?That today is fine is lucky.

즉 향화자 부사는 전통적인 문장부사와는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이른바 문장부사로

간주하였던 *possibly*는 (126b)에서 보는 것처럼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서술어로 간주할 수 있지만, (127a)는 물론이고 (127b) 역시 비문법적인 것은 이른바 *luckily*와 같은 부사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26)의 두 표현이 문법적인데 반해서 (127)의 두 표현은 비록 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125)에서 보는 것처럼 명제 *Today is fine*이라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화창한 것은 다행도 아니고 불행도 아니다. 예컨대 우산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날씨가 화창한 것은 행운일 수 없으나, 양산 장사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날이 화창해야 할 것이고, 날이 화창하다는 사실은 행운일 수 있다. 이렇듯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행/불행을 평가하는 것은 사건 자체의 행/불행이 아니라 화자의 입장에서 행/불행을 이야기 할 수 있다. 따라서 *luckily*와 같은 부사는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문장부사가 아니라 화자와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이른바 향 화자 부사(speaker-oriented adverb)이다.

(128) The speaker evaluates it lucky that today is fine.

바꾸어 말하면 (127)의 의미는 (128)과 같이 기술하는 것이 보다 합당할 것이다. 이렇듯 부사 *luckily*는 명제 *Today is fine*을 논항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명제를 논항으로 취하는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향 화자 부사 *frankly* 역시 마찬가지이다.

(129) a. Frankly, John is honest.

b. If I say it frankly, John is honest.

즉 *frankly*는 *John is honest*를 논항으로 취하는 함수 표현이 아니라, 화자인 나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한다면, 존은 정직한 사람인 경우이다.

(130) * That John is honest is frank.

논리적으로도 명제 *John is honest*가 *frank*의 논항이 될 수 없다는 것은 (130)의 비문법성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술부부사는 수식영역이 문장의 영역보다는 좁은 즉 VP 영역이라는 점

에서 이들의 형식화가 용이하였다. 그러나 술부부사인 태도부사가 가질 수 있는 의미적 중의성의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quickly* 와 같은 태도부사라 할지라도 문장에서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의미적 상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quickly*의 수식 영역에 의한 의미적 차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수식영역의 차이를 기술하기 위한 논거는 Travis(1988)에서 볼 수 있다.

Travis(1988)에 따르면 (131)의 *quickly*는 문장의 위치에 따른 수식영역의 차이가 있음을 보이고 있다.

- (131) a. Quickly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 b. John quickly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 c. John will quickly be arrested by the police.
- d. John will be arrested by the police quickly.

(131a)와 (131b)의 *quickly*는 체포사건(the event of arrest)을 수식하는 데 반해서 (131c)와 (131d)의 *quickly*는 체포과정(the process of arrest)을 수식한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131a)와 (131b)의 의미는 체포하는 사건이 곧 바로 발생했다는 의미인데 반해서 (131c)와 (131d)는 체포하는 행위가 신속이 발생했다는 의미라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이다.

이 경우 체포사건을 수식하는 경우와 체포과정(행위)를 각각 구분하여 수식하는 경우, 전자를 수식하는 경우를 향 주어 부사(subject-oriented adverb)라 칭하고 후자를 수식하는 경우를 향 행위자 부사(agent-oriented adverb)라고 분리하였다. 이와 같이 이른바 술부부사로 간주하였던 *quickly*를 서로 다른 하위영역으로 분류한 것은 동사가 갖는 사건의 구분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어휘범주론에 근간을 두고 있는 어휘 해체분석에 따르면 *kill*과 같은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영역을 *x causes y*와 *y become to die*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던 것을 고려한다면 이제 *arrest*의 의미 역시 두개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체포하는 행위와 사건을 구분할 경우 *x caused y* 와 *y is arrested*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태도부사 *clumsily*와 같은 부사의 기능에 따른 의미적 특성이 드러나는 경우를 살펴보자.

- (132) a. Clumsily John spilled the beans.
 b. John spilled the beans clumsily.

(132)의 *clumsily*의 의미는 각각 다음과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133) a. It was clumsy of John to spill the beans.
 b, John spilled the beans in a clumsy manner.

*clumsily*의 의미적 범주는 사건과 관련된 향 행위자 부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향 주어 부사는 사건 전체와 관련된 부사이고 향 행위자 부사는 사건의 하부구조와 관련된 부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통사적으로는 부사의 범주를 술부부사와 문장부사로 분류할 때, 지금까지 보아온 향주어부사나 향 행위자 부사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부사의 범주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술부부사 가운데 Ernst (2002;258)에서는 태도(manner)부사, 측정(measure)부사, 화역(domain)부사, 반환(restitutive)부사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 부사는 사건구조의 의미를 결정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들 부사 가운데 태도부사가 사건구조의 의미를 결정하는 몇 가지 현상들은 논의하였으나 영역 부사나 반환부사는 술부부사이면서도 이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 (134) a. These budget cuts will be painful politically.
 b. They classified all the samples morphologically.

이들 부사가 통사적으로 술부부사라는 것은 태도부사가 문중에 나타나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

- (135) a. *These budget cuts will politically be painful .
 b. *They morphologically classified all the samples .

(134)가 문법적인데 반해서 (135)는 비문법적이다. 즉 이들 부사는 문미에 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문중에 나타나면 마치 문장부사와 같은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부사는 문장 전체를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가 아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politically*가 수식하는 것은 *painful*이다. 만일에 이들 영역부사가 서술어를 수식한다면 *politically*의 논항이 *painful* 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painful \in politically$ 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른바 정치적 고통이란 고통 자체가 정치의 요소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일 뿐이다. 따라서 *politically*가 *painful*을 논항으로 취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고통스럽다는 표현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관계로 설명해야 하며 이는 사건의 내부구조에 관한 수식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5.1 영역 부사

이러한 의미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연산자(operator)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문장이 해석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어진 조건이 수반해야 할 것이다. Ernst(2000)에서는 영역부사의 의미를 기술하기 위해서 CR(d, c*)라는 형식적 모형을 도입하였다. 즉 CR(d, c*)는 주어진 영역 d에서, 조건 c*의 맥락 제약(Contextual Restric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C*는 문장이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의 집합을 말하며, 이러한 조건에는 영역부사를 포함하여 다른 부사에 의하여 표현되는 조건들도 포함한다. 따라서 어떤 문장이든 CR(x, c*)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에서 x는 어떤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고, UNDER(e, e*)는 임의의 서술어의 해석을 나타낸다. 예컨대 어떤 사건 (e)는 조건 c*에서 이해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하면 사건이란 어떤 조건이 주어질 때만 이해될 수 있는 경우이다.

$$(136) \text{CR}(d, c^*) \dots [eF(e) \dots \& \text{UNDER}(e, c^*)]$$

(136)은 영역부사가 없거나, 구체적인 조건이 없는 문장의 의미기술이다. 여기에서 d는 문맥상으로 영역을 결정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보다 간단히 말해서 사건 e는 어떤 조건 c에서 e의 속성을 나타낸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영역부사 수식영역에 따른 의미적 차이는 (137)과 같이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137) \text{a. CR}(\text{DOM}, c^*) \dots [eF(e) \dots \& \text{UNDER}(e, c^*)]$$

$$\text{b. } [\exists e[eF(e) \dots \& \text{UNDER}(e, c^*)]] \& \text{CR}(\text{DOM}, c^*)$$

(137a)의 CR(DOM,c*)는 영역부사의 번역이다. 따라서 (137a)는 이러한 영역부사가 문두에 나타나는 경우의 의미기술이고, (137b)는 영역부사가 문미에 나타나는 경우의 의미기술이다.

- (138) a. Physically, her health is improving.
 b. Her health is improving physically.

- (139) a. CR(PHY. c*) . . . [$\exists eI(e) \& Th(e, h) \& UNDER(e, c^*)$]
 b. . . [$\exists e[\exists eI(e) \& Th(e, h) \& UNDER(e,e^*)] \& CR(PHY.c^*)$]

(138)에서 보는 것처럼 영역부사 *physically*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의미적 차이를 갖는다. 즉 여러 가지 영역 즉 그녀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정치적, 또는 육체적 영역 가운데 육체적인 영역에서 보면 그녀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138b)의 경우는 그녀의 건강이 좋아지고 있는 영역은 오직 육체적인 영역에서 개선되고 있음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그녀의 건강이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은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이거나 또는 그 외의 영역 가운데서 오직 육체적인 영역에서 건강이 좋아지고 있음을 말한다. 따라서 진리조건 상으로는 두 문장의 의미는 동일하지만, 차이가 있다면 영역의 계층성이라는 점이다.

이렇듯 영역부사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사건 구조적 의미 기술은 (140a)의 예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면 더욱 명백히 그 의미적 차이를 알 수 있다.

- (140) a. These budget cuts will be painful politically.
 b. [$\exists e [\exists e PAINFUL(e) \& Agent(e, b) \& UNDER(e, c^*)] \& CR$
 (POLITICA, c*)]

(140a)의 의미는 고통스러운 사건 e는 여러 가지 사건들 가운데 하나이다. 바꾸어 말하면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행위자는 바로 예산삭감이며, 예산 삭감이 처한 조건 가운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되어 이루어진 경우이며 그 여러 가지 조건은 정치적인 상황에 국한된 경우이다. 예컨대 예산 삭감이 고통스러운 것은 삭감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운 사건이거나, 아니면 예산 부처가

감당해야 할 고통일 것이다. 고통스럽다는 사건과 정치는 서로 다른 영역의 문제로 여러 가지 조건들 가운데 정치적인 것으로 제한하였을 경우에 국한된 경우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에서도 보다 명료하게 의미적 차이를 밝혀볼 수 있을 것이다.

(141) a. 그 주장을 물리적으로 해결했다.

b. 두 물체의 결합은 물리적으로 가능했다.

직관에 비추어 보더라도 (141a)의 물리적과 (141b)의 물리적인 그 영역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주장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물리적 영역의 사건이 아니라 논리적 사건이다. 즉 어떤 주장을 반론이나 반증을 제시하여 해결하거나 타협한 것이 아니라,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은 완전히 폭력을 써서 그 주장이 억누른 경우이다. 따라서 (141a)의 물리적이 나타내는 영역은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 하나를 의미한다. 그런데 반해서 (141b)에서의 물체 결합은 본래 물리적 현상이며, 이는 물리적 영역 가운데서 나타나는 물리적 영역이다. 예컨대 물리화학은 넓은 의미에서는 과학의 영역 즉 물리학과 화학이 독립적 영역이지만, 물리화학이 지시하는 영역은 물리학의 영역내의 화학을 말하는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구조 물리학은 구조학과 물리학이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물리학 내에서 구조학을 말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142) a. CR(물리적, c*) . . . [$\exists e$ 해결(e) & Th(e, 주장) & UNDER(e, c*)]

b. . . [$\exists e$ [$\exists e$ 가능(e) & Th(e, 결합) & UNDER(e, e*)] & CR (물리.c*)]

5.2 반환부사어

부사들 가운데는 측정부사는 물론이고 반환부사 역시 사건의 내부구조와 관련된 의미로 간주된다. 특히 이들 부사는 헤체된 서술어의 상 가운데 어느 일부를 나타낸다.

(143) a. John closed the door again.

b. John again closed the door.

(143a)는 반환적 의미와 반복적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143b)는 반환적 의미만 가지고 있다. 즉 (143a)는 John이 문을 닫는 사건이 두개의 독립적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 이를 반복적 사건으로 간주하는 경우와 이미 닫혀진 문이 원래의 상태로 변환되는 경우를 반환적 의미로 간주할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143a)는 얼마 전에도 문을 닫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다시 문을 닫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런데 반해서 (143b)의 의미는 John이 이미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닫혀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닫혀진 문을 다시 닫는 경우이다. 바꾸어 말하면 (143a)는 두개의 독립된 사건을 나타내는 경우이고 (143b)는 하나의 사건을 반환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이다.

이 경우 *again*이 나타내는 연산자는 서로 다른 수식영역(scope)을 갖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144) $again = \exists e' [\parallel MAX \parallel (P)(e') \ \& \ e' < e]$

단 P는 사건의 속성이고, $MAX(P)(e')$ 의 의미는 사건의 최대치(maximal of P-event)이고, < 선행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close*와 같은 서술어는 *BECOME + CLOSED*로 해석될 수 있으며, *CLOSED*는 마지막 상태를 나타낸다. 여기에서 *close*라는 사건을 상적으로 *CAUSE*와 *BECOME*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143)의 *again*은 두개의 상적 면모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lose*라는 사건이 나타내는 두개의 상 *CAUSE*와 *BECOME*을 구체적인 예로 나누어보면 다음과 같다.

- (145) a. John opened the door.
 b. The door opened.

(145a)에서는 분명히 *John*은 문을 여는 유발자(causer)로서 기능을 하기 때문에 *open*이라는 사건에는 *cause*와 *become*의 두개의 상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45b)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은 *open*의 유발자가 아니며 오직 문이 열려진 상태 즉 *become*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¹¹⁾

11) *closed*는 대격으로 간주되는데 반해서 *open*은 비대격으로 간주된다. 예컨대 *open*과 같은 경우는 *The door opened*와 같은 문장에서 *open*은 비대격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만일에 비대격으로 쓰이는 경우라 한다면,

국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 (146) 철수가 또 문을 열었다.
철수가 문을 또 열었다.

국어에서는 부사 **또**가 나타나는 위치에 따른 의미적 상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부사 **또**가 갖는 수식영역의 차이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환묵(1982)에 따르면 **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의미적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 (147) a. 영희가 착하고 그의 동생이 또 착하다.
b. 철수가 영수를 속이고 명수가 경수를 또 속였다.
c. 철수는 책을 빨리 읽고, 영희는 글씨를 또 빨리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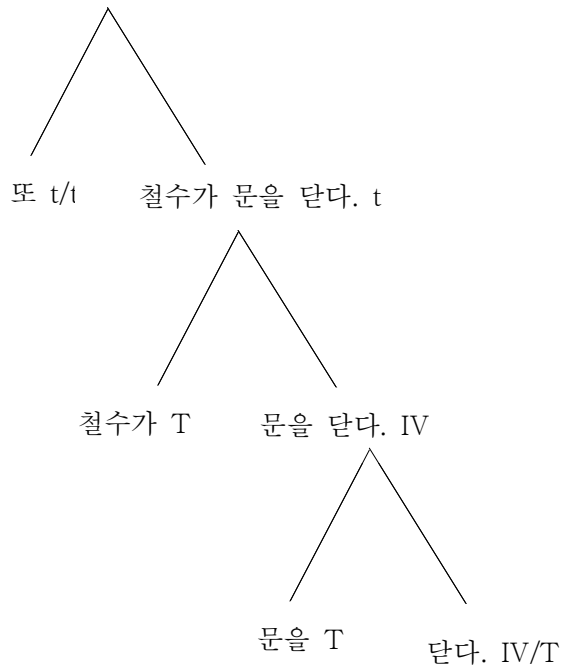
(147)에서 보는 것처럼 **또**는 그 수식대상이 문장 뿐 만 아니라 동사, 명사, 형용사, 그리고 부사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46a)의 철수가 또 문을 열었다에서는 **또**가 첫째 문장을 수식하는 경우 즉 **또**의 논항이 문장인 경우로서 **또**가 철수가 문을 열었다를 수식하는 경우와 둘째, **또**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 즉 열었다를 수식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가 철수를 수식하는 경우로 간주하고 있다.

- (148) 철수가 가더니 철수가 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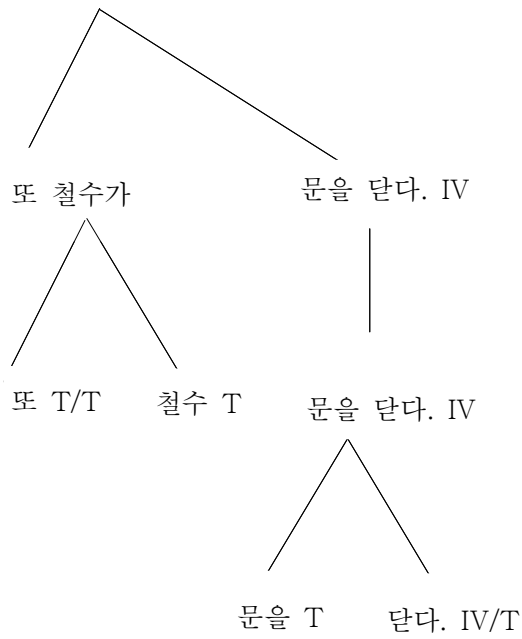
(148)의 경우에 있어서 철수가 동일인이라고 한다면 철수의 반복이며 이 경우 **또**의 수식 대상은 철수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는 철수 뿐 만이 아니라 오다, 그리고 문장을 수식함으로써 의미적 중의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렇듯 **또**가 명사, 동사, 문장을 수식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른다.

CAUSE와 같은 상위의미영역은 존재하지 않고 다만 BECOME부분만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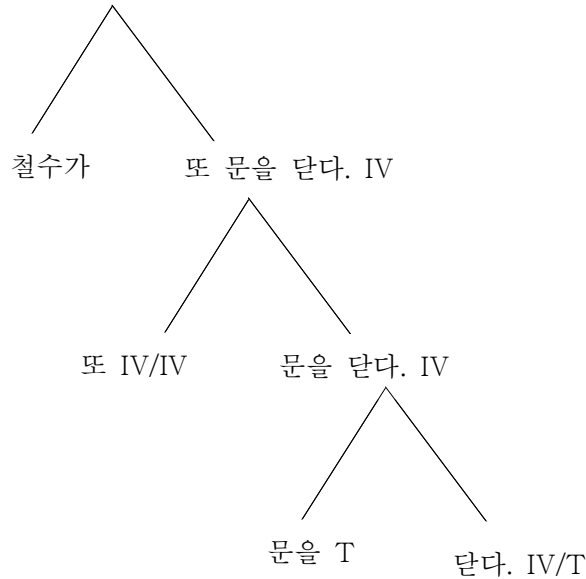
(149) a 철수가 또 문을 닫다. t



b 철수가 또 문을 닫다. t



c 철수가 또 문을 닫다. t



(149a)에서는 또가 문장을 논항으로 취하는 경우이고 (149b)는 또가 철수를 수식하는 경우이며, (149c)는 또가 동사구 문을 닫다를 수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통사적 관계를 중심으로 또의 범주는 t/t, T/T 그리고 IV/IV의 범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며, 이들 각각의 서로 다른 범주를 갖는 또를 포함한 문장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50) a. [∃e 또 [∃e CAUSE(e'') & AGENT(e'', 철수) & Theme(e'', 문) & [∃e BECOME(e') & THEM(e', [e, CLOSED(e) & Th(e,문)])]]]

(반복적 해석)

b. [∃e CAUSE(e) & 또 [∃e'' AGENT(e'', 철수) & Theme(e'', [e, BECOME (e'') & THEM(e'', [∃e CLOSED(e) & Th(e,문)])]]]

(복원적 해석)

c. [∃e CAUSE(e'') & AGENT(e'', 철수) & Theme(e'', [∃e BECOME (e'') & THEM(e'', [e, 또[∃e CLOSED(e) & Th(e,문)])]]]

(복원적 해석)

(150a)의 의미는 철수가 문을 닫는 행위가 두 번 일어난 경우로 해석되는 경우이다. 그리고 (150b)의 의미는 철수가 어떤 행위를 유발했으며, 그 행위를 한 주체가 다시 동일한 사건을 한 경우이며, (150c)의 경우는 문이 두 번째로 닫혀진 상태로 존재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5.3 태도부사

태도부사는 통사적으로 술부부사이지만, 이들 태도부사는 문장의 위치에 따라 문장부사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술부부사로서 기능을 하는 경우가 있다.

- (151) a, George was speaking to him politely
b. Jeogre was politely speaking to him.

일반적으로 *politely*와 같은 태도부사는 문장부사로 간주되지만 이들 부사가 동사 다음에 위치하면 오직 태도부사로서만 해석된다. 그러나 동사 앞에 오는 경우 즉 (151b)에 있어서는 문장부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술부부사로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politely*가 술부부사라는 것은 명시적인 문장부사와 비교해 보면 더욱 명백히 그 차이가 드러난다.

- (152) a. *The committee has chosen her probably.
b. The committee has probably chosen her.

(152a)가 비문법적인데 반해서 (152b)가 문법적인 것은 *probably*와 같은 부사는 문미에 쓰일 수 없으며 동사 앞에 쓰이는 경우 문법적이다. 바꾸어 말하면 술부부사는 문미에 쓰일 수 있으나 문장부사는 문미에 쓰일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태도부사는 동사의 앞에 놓이는 경우와 동사 뒤에 놓이는 경우가 있으며, 이들의 위치에 따른 의미적 차이가 있을 수 있다. Ernst (1984:240)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동사 앞에 이들 태도부사가 놓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배경 정보를 나타내는 데 반해서 동사구 뒤에 이들 부사가 놓이는 경우는 선행 정보를 나타낸다.

- (153) a. John loudly proclaimed his innocence.
 b. John proclaimed his innocence loudly.

(153a)의 의미는 존은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큰 소리로 결백을 주장한 경우이고, (153b)의 의미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의 결백을 큰 소리로 주장함으로써, 앞으로는 자기가 과오를 범하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한 결백을 주장하는 경우이다.

이렇듯 태도부사가 동사 뒤에 놓이는 경우 동사가 나타내는 행위에 대한 앞으로의 태도를 명시한다고 할 수 있다.

- (154) a. John worded the letter carefully.
 b. ?? John carefully worded the letter.

- (155) a. Mary dresses elegantly.
 b. * Mary elegantly dresses.

- (156) a. Job was behaving admirably.
 b. * Bob was admirably behaving.

- (157) a. Bob was treating John badly.
 b.* Bob was badly teating John.

(154)~(157)의 b의 문장이 비문법적이거나 비 적격형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들 문장에는 태도부사가 동사 앞에 놓였기 때문이다. 특히 (154)와 (155)에서 *word*나 *dress*와 같은 동사는 그 자체로서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부사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즉 동사 앞에 놓이는 부사는 배경정보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글자를 읽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에 대한 배경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현 상황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글자를 읽는 것이나 옷을 입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정보나 어떻게 입을 것인가의 정보가 필요한 것이지 옷에 대한 배경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글자에 대한 정보 보다는 그 글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상황정보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태도 부사는 동사구 앞에 놓일수 없고, 동사 뒤에 놓여 앞으로 정보나 현 상황에 대한 정보를 부가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156)과 (157)에서도 이와 동일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56)에 있어서도 존경 받을 수 있는 행동은 그 행동의 배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의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바꾸어 말하면 존경받을 수 있도록 행동한다는 것은 그의 과거의 행동에 의하여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행동이나 주어진 상황에서의 행동 때문에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이다. 또한 (157)의 경우에 있어서도 John에게 어떤 치료 방법을 주었다는 과거의 배경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badly*를 해석한다면 (157a)의 의미는 현 상황에서 John을 잘못 치료하고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태도부사 가운데는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와 동사 뒤에 놓이는 경우 문법성과 의미적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158) a. * John poorly built the house.

b. John built the house poorly.

(159) a. *Mary beautifully played the violin.

b. Mary played the violin beautifully.

(160) a. *Joe horribly performed the pirouette.

b. Joe performed the pirouette horribly.

(158)~(16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각각의 a 문장이 비문법적인 것은 태도부사가 동사구 앞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Hopper and Thompson (1980)에 따르면 (158)-(160)의 동사들은 두 개의 참여자를 갖는 경우로서 그 하나는 의도적 행위자 (volitional agent)와 피 영향 대상자(affected object)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태도부사 *poorly*는 행위자를 수식하는 경우로서 어리석은 행위자가 집을 지었다는 의미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158a)의 본래 의미는 집이 허술하게 지어진 상태를 기술하는 것이지 집을 짓는 행위자의 의지가 허술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158a)는 비문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59)의 *play* 역시 두 개의 참여자를 수반하고 있으며, (160)의 *perform*¹²⁾ 역시 두 개

12) 다른 동사에 비하여 *perform*은 타동사적 특성이 약하다. 즉 두 개의 참여자 가운데 행위자와 피영향 대상자 사이의 관계가 명료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의 참여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는 행위와 관련된 의도적 행위자와 피 영향 대상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팽이를 치는 사람과 팽이 사이의 관계로서 태도부사 *horribly*가 수식하는 것은 팽이를 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팽이에게 가해진 행동이 끔찍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0a)에서는 *끔찍하게*가 행위자를 수식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160b)가 문법적인 것은 *horribly*가 두 개의 참여자 가운데 두 번째 참여자인 피 영향 대상에 대한 기술이므로 문법적이라는 것이다.

- (161) a. The house had been poorly built by John
- b. The violin was beautifully played by Mary
- c. The pirouette was horribly performed by Joe

(161)은 (158)~(160)의 각각의 b의 문장의 수동형이다. 이들 수동문에서는 동사 앞에 태도부사가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법적인 것은 바로 이들 동사의 수반하는 두 개의 참여자의 순서가 바뀌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161a)의 *built*의 두 번째 참여자인 피 영향 대상자는 *the house*이기 때문에 *poorly*가 수식하는 것은 바로 지어진 집의 허술하였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161a) 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은 이유에서 (161b) 그리고 (161c)는 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의 동사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타동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따라 문법성이 결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타동사적 특성이 약하면 약할 수록 동사 앞에 놓이는 태도부사의 수용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 (162) a. * They perfectly wrote the job description.
- b. They wrote the job description perfectly.

- (163) a. *They perfectly described the job.
- b. They described the job perfectly.

- (164) a. * The rest results badly scared them.
- b. The rest results scared them badly.

(165) a. ? She had perfectly concealed the weapons.

b. She had concealed the weapons perfectly.

(166) a. The weapons had been perfectly concealed.

b. The weapons had been concealed perfectly.

(162a), (163a), (164a), 그리고 (165a)는 비문법적이거나 부적격형으로 간주된다. 이들 표현이 비문법적인 것은 이들 동사가 나타내는 타동사적 특성의 정도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동사적 특성이란 이들 동사가 수반하는 행위자와 피 영향자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느냐에 여부에 의해 달라진다. 그런데 반해서 (166a)가 문법적인 것은 (165)의 수동형으로써 동사가 나타내는 제2 수반자와 관계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즉 conceal이 수반하는 행위자와 피영향자 사이에서 부사 perfectly는 피영향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행위자인 she에게는 영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 바꾸어 말하면 perfect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무기의 상태를 의미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태도부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행위자와 피영향자 중에서 후자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된다.

5.4 측정부사

측정부사는 앞에서 논의한 반환부사와 마찬가지로 협의의 수식영역을 갖는다는 점에서 그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측정부사 가운데는 *halfway*, *partway*, *partially*, *completely*, *partly*, *slightly*, *very much*, *half* 등이 있다. 이들 부사 가운데 *halfway*나 *partway*와 같은 부사는 반드시 동사 뒤에 쓰여야 하지만, *half*와 같은 부사는 동사 앞에 쓰여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이 외의 태도부사들은 비교적 자유로운 어순을 갖는다.

(167) a. John (*halfway) filled the bowl (halfway).

b. Jill (*partway) followed the presentation (partway)

(168) a. John (half) filled the coffee urns (*half)

- (169) a. John (completely) understand Jim's instruction (completely)
 b. Jill (*very much) likes going there (very much).

(167)에서 보는 것처럼 *halfway*나 *partway*와 같은 부사는 동사 앞에 위치하면 비문법적이지만, 문미 즉 동사 다음에 나타나면 문법적이다. 그리고 (168)에서 보는 것처럼 *half*는 동사 앞에 놓이는 경우는 문법적이지만, 동사 뒤에 놓이면 비문법적이다. 이와는 달리 (169)에서 보는 것처럼 *completely*나 *very much*와 같은 부사는 비교적 자유롭게 쓰일 수 있다.

이렇듯 측정부사는 통사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지만, 이들 부사가 갖는 공통적인 의미적 특성은 4.1에서 논의한 핵심사건을 수식한다는 점이다.

- (170) a. John partially opened the door.
 b. John opened the door partially.

- (171) a. Mary completely finished her apple pie.
 b. Mary finished her apple pie completely.

(170a)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partially*는 동사 앞에 위치할 수도 있고 (170b)에서 처럼 동사 뒤에 위치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completely* 역시 (171)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동사 앞이나 동사 뒤에 위치할 수 있다. 이렇듯 이들 측정부사가 나타날 수 있는 위치는 대단히 자유롭지만 이들이 수식하는 수식영역은 핵심사건에 국한된다는 점이다. (170)의 동사 *open*을 어휘해체하면 CAUSE (BECOME (BE-OPEN))과 같이 분석되며 부사 *partially*는 *open*의 핵심사건인 (BE-OPEN))만을 논항으로 취한다.

- (172) a. PARTIAL [∃e' CAUSE(e'') & Th(e''), [∃e' BECOME(e') & Th(e' [∃e BE-OPEN(e) & Th(e, door)])]]
 b. [∃e' CAUSE(e'') & Th(e''), [∃e' BECOME(e') & Th(e''), [∃e' PARTIAL [∃e BE-OPEN(e) & Th(e, door)]]]]

이 경우 부사 *partially*가 동사 앞에 위치할 경우 즉 (170a)의 사건 구조적 의미표시는 (172a)와 같다. 즉 측정부사 *partially*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 *partially*의 논항

은 $[\exists e' \text{ CAUSE}(e'') \ \& \ \text{Th}(e''), [\exists e' \text{ BECOME}(e') \ \& \ \text{Th}(e'[\exists e \text{ BE-OPEN}(e) \ \& \ \text{Th}(e, \text{ door}]])]]]$ 가 된다. 그리고 *partially*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 *partially*의 논항은 $[\exists e \text{ BE-OPEN}(e) \ \& \ \text{Th}(e, \text{ door})]$ 가 된다.

마찬가지로 측정부사 *completely*의 수식 영역도 *partially*와 유사하다.

(173) a. COMPLETE $[\exists e' \text{ CAUSE}(e'') \ \& \ \text{Th}(e''), [\exists e' \text{ BECOME}(e') \ \& \ \text{Th}(e'[\exists e \text{ BE-FINISHED}(e) \ \& \ \text{Th}(e, \text{ apple pi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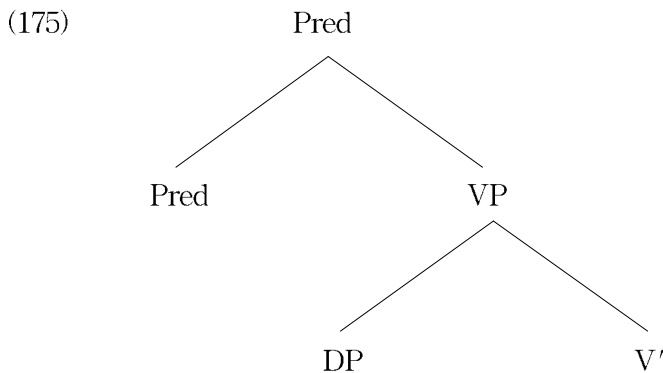
b. $[\exists e' \text{ CAUSE}(e'') \ \& \ \text{Th}(e''), [\exists e' \text{ BECOME}(e') \ \& \ \text{Th}(e'[\exists e' \text{ COMPLETE}[\exists e \text{ BE-FINISHED}(e) \ \& \ \text{Th}(e, \text{ apple pie}]])]]]$

(173)에서 보는 것처럼 (169a)의 사건구조는 (173a)와 같고, (169b)의 사건구조는 (173b)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즉 측정부사 *completely*가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경우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경우 각각의 논항구조는 각각 (173)과 같다.

물론 동사를 해체분석 할 경우 CAUSE와 같은 사역의 의미가 없는 동사에서는 측정부사가 종결 상태(end-state)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174) The ice melted partway

동사 *melt*의 경우에는 자동사의 의미만 갖게 되므로 CAUSE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즉 핵심사건은 VP에서 나타나지만, BECOME에는 사역의 의미를 갖지 않기 때문에 V가 상승된 상위의 VP에서 핵심사건의 의미가 나타난다.



(175)에서 보는 것처럼 종결 상태의 핵심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부사 *partway*가 수식할 수 있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partway*와 같은 부사는 상위VP와 하위VP가 존재할 때 그 수식영역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176) a. * John partly kicked the wall.

b. *Mary loves music partway.

(177) a. *David partly put the book on the table.

b. * Max set the bowl on the floor partway.

그러나 (176)와 (177)에서 보는 것처럼 *partly*나 *partway*와 같은 측정부사는 일반적으로 핵심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kick*나 *put*와 같은 동사에서는 수식대상이 없기 때문에 비문법적이다.

5.5 부사의 상호관계

지금까지 논의한 몇몇 부사들이 하나의 문장에 함께 쓰이는 경우에 이들의 순서를 결정해야 할 경우가 있다. 우선 태도부사는 영역부사와 함께 쓸 수 없다.

(178) a. Mary has improved defensively rapidly.

b. Mary has improved rapidly defensively.

(179) a. Emerging democracies evolve politically rather slowly

b. Emerging democracies evlove rather slowly politically.

(180) a. You can represent this graphically quite clearly

b. You can represent this quite clearly graphically.

(178)에서 (180)의 각각에는 태도부사에 해당하는 *rapidly*, *slowly*, 그리고 *clearly*와 영역 부사에 해당하는 *defensively*, *politically*, 그리고 *graphically*가 함께 쓰이고 있

다. 일반적으로 태도부사는 중복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복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동사에 인접한 내부부사는 다른 부분집합과 대조를 이룰 수 있는 사건의 부분집합을 정의해줄 수 있다. 그런데 반해서 상위 수식영역을 갖는 외부부사는 이들 부분집합과 일대일 대응 관계를 보여준다.

- (181) a. They play quietly well, but get rambunctious when we have more lively games.
 b. She runs slowly correctly, but loses her form when she speed up.

(181a)에서 *they*가 아이들을 가리키고 있다면 (181a)의 의미는 우리들이 조용한 게임을 하고 있는 한 아이들은 점잔하게 행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꾸어 말하면 아이들이 조용히 게임을 하다가도 우리가 좀 경쾌하게 게임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야단법석을 피우는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 이 경우 부사 *well*은 조용하게 게임하는 사건을 암전한 행동과 대응관계를 맺어준다. 바꾸어 말하면 부사 *well*은 부사 *quietly*와 후행하는 문장이 의미하는 야단법석과 대응관계를 나타낸다. 만일에 (181a)의 부사 *well*이 없다면 야단법석을 피우는 행위를 설명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181b)에서 올바른 트랙을 따라 연습하고 있는 주자가 있다면, (181b)의 태도부사 *correctly*는 천천히 달리는 사건을 올바른 트랙을 달리는 사건으로 사상해주는 역할을 한다. 바꾸어 말하면 *correctly*는 선행문장에 나타나는 태도부사이지만, 의미적으로는 후행하는 문장의 동사구에 영향을 미친다.

- (182) a. 아이들은 조용히 잘 놀다가도, 신나는 게임을 하게 되면 야단법석을 피운다.
 b. 영희는 천천히 정확하게 달리다가도, 속도를 높이면 자세가 흩어진다.

(182)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 *잘*은 동사 *놀다*를 수식하면서도 후행하는 문장의 야단법석을 피우는 행위는 선행하는 문장의 부사 *잘*과 대조를 이루게 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부사 *잘*은 (182a)의 후행문장에 나타날 수 없다.

- (183) a. *아이들은 조용히 잘 놀다가도, 신나는 게임을 하게되면 잘 야단법석을 피운다.

- b. *영희는 천천히 정확하게 달리다가도, 속도를 높이면 정확하게 자세가
 흩어진다.

(183)이 비문법적인 것은 태도부사가 두 문장에 중복적으로 쓰임으로써 비문법적인
 문장이 유도된 것이다. 이렇듯 태도부사는 중복적으로 쓰일 수 없지만, 태도부사와 영
 역부사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문법적인 경우도 있다.

또한 태도부사는 측정부사와 자유롭게 교체가 가능하다.

(184) a. She filled the vat smoothly partway

b. She filled the vat partway smoothly.

(185) a. ? 영희는 항아리를 순조롭게 어느 정도까지 채웠다.

b. 영희는 항아리를 어느 정도까지 순조롭게 채웠다.

영어는 물론이고 국어에서도 태도부사와 측정부사는 공기할 수 있다. (184)에서 보는
 것처럼 *smoothly*는 태도부사이고, *partway*는 측정부사이다. 마찬가지로 국어에서 태
 도부사와 측정부사가 공기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185a)의 *순조롭게*는 태도부사
 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측정부사이다. 그러나 (185a)와 (185b)의 의미적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185a)와 (185b)가 문법적이라고 하더라도 (185a)는 약간 부자연스러
 운 표현이다. 그 이유는 태도부사 다음에 측정부사가 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해서
 (185b)가 자연스러운 표현인 것은 측정부사 다음에 태도부사가 쓰였기 때문이다.¹³⁾ 이
 러한 차이는 태도부사는 동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태도부사의 일반적 특성이
 다. 바꾸어 말하면 태도부사의 직접적인 논항은 동사로 간주되기 때문에 태도부사가
 동사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유도된다.

(186) a. ?? 영희는 항아리에 순조롭게 다행히 가득 채웠다.

b. 영희는 항아리에 다행히 순조롭게 가득 채웠다.

(186)에서 보는 것처럼 부사 *다행히*는 향화자부사로서 통사적으로는 문장부사이다.
 그리고 *순조롭게*는 술부부사이다. 이렇듯 상위영역에 나타나야 할 향화자부사가 술부

13) 국어는 Verb final language이며 Scrambling rule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사의 위치가 비교적 자연스럽다.

부사보다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유도된다. 그러나 (186b)는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즉 향화자 부사 다음에 술부부사가 위치하고 있으며 더욱 술부부사는 동사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태도부사, 영역부사, 그리고 측정부사들은 자유스럽게 공기할 수 있음을 보았다. 이들이 비교적 자유스럽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우선 이들의 의미적 제약이나 화용적 제약을 어기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 가능한 경우이다.

(187) a. She inserted it partway skillfully.

b. *She inserted it skillfully partway. as they got the hang of it.

(188) a. They were breathing heavily halfway, but got better as they got the hang of it.

b. *They were breathing halfway heavily, but got better as they got the hang of it.

(187a)가 문법적인 것은 태도부사 *skillfully*는 측정부사 *partway*보다 상위의 수식영역을 갖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해서 (187b)가 비문법적인 것은 상위수식영역을 가져야 할 태도부사가 측정부사의 수식영역 속에 있기 때문이다. 즉 *skillful*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부분적인 삽입을 의미한다. 그녀가 그것을 기술적으로 밀어 넣는데 있어서 일 부분 만을 이행하는 경우라 할 수 있으나, 기술적으로 밀어 넣는 일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부분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해서 (188a)가 문법적인 것은 (187)과는 달리 측정부사 *halfway*가 태도부사 *heavily*보다 상위의 수식영역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188a)가 의미하는 경우는 절반 정도 달리기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호흡이 험떡이는 경우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88b)가 비문법적인 것은 반만큼 험떡거리는 호흡이 심한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은 설정하기가 힘들다 즉 (188b)는 해석 불가능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88b)는 비문법적이다. 이렇듯 태도부사와 측정부사는 각각의 위치에 관계없이 공기할 수 있음을 보았으나 (187)서는 태도부사 - 측정부사의 순서를 가져야 하고 (188a)에서는 측정부사-태도부사의 순서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부사간의 공기의 문제는 문법적이거나 부사의 통사적 특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의미적 현상이나 화용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서 부사는 이들이 나타나는 위치보다는 수식영역에 있어서

동사가 나타내는 핵심사건을 수식한다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반해서 동사구(VP)와 결합하는 부사들은 더 광의의 수식 영역을 갖기 때문에, 전체 사건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제 6 장 결론

본 논문은 복합동사와 부사를 중심으로 이들 표현이 나타내는 사건구조와 의미를 규명하고, 이를 형식적으로 기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어의 복합동사는 두 개 이상의 동사가 병립하여 쓰인다는 점에서 이들이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더욱 복잡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부사가 사건구조에 간여하는 경우 이들 동사와 부사가 나타내는 사건구조는 더욱 복잡한 면모를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보다 명료하고 간결하게 기술하기 위해서 아원자 의미론을 의미 기술의 틀로 삼아 영어와 국어의 사건구조와 이들의 상호관계를 기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동사가 나타내는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사건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선결과제임을 감안할 때, 아원자 의미론의 기술방안을 따른다면 모든 동사는 적어도 두 개의 사건구조로 해체분석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동사는 상위 VP와 하위 VP로 구분되며, 상위 VP는 사건의 과정을 나타내고 하위 VP는 핵심사건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위VP와 하위VP는 영어에 있어서는 어휘에 따라 해체분석에 의하여 명료하게 구분되지만 국어에 있어서는 이른바 복합동사의 구조로 실현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영어의 give와 같은 동사는 이들 동사가 수반하는 목적어에 따라 hold 또는 pick up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상위VP와 give something to someone과 같은 하위 VP 즉 핵심사건으로 해체되며, 국어에서는 [집다 + 주다]의 결합표현인 [집어주다]로 실현된다.

이렇듯 영어의 동사는 어휘해체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상위VP와 하위 VP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들 동사가 취하는 목적어나 부사에 따라 달라지지만, 국어에서는 이러한 어휘해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목적어에 따라 복합동사의 표층적 표현이 달라진다.

또한 부사가 사건구조에 간여하는 경우 가운데 향화자 부사, 화역부사, 반환부사, 태도부사, 측정부사 등의 사건구조는 이들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 사건구조가 달라진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예컨대 영역부사의 사건구조는 CR(d, c*)로 기술할 수 있으며, 화역 d와 초건의 집합 c*라는 맥락에서 영역부사는 사건과 관련된 표현임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부사가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의 문법성과 비문법성을 토대로 하여 이들 부사의 사건구조 사이의 충돌 및 상호 호혜관계를 밝힘으로써 부사의 사건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논의한 동사는 국어의 복합동사에 국한된 사건구조의 기술이었다. 특히 국어의 사슬동사의 경우는 사건구조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 것으로 생각되며, 부사 역시 더 많은 부사가 갖는 사건구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둘 수밖에 없다.

참고 문헌

- 김석득.(1992), 「우리말 형태론」, 서울 : 탑출판사.
- 김차균.(1980), “국어 시제의 기본 의미”, 「지현영선생 고회 기념논총」.
- 남기심.(1978), “국어 문법의 상과 시제”, 「한국학보」, 12.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 문법론」, 서울 : 탑출판사.
- 박선자.(1983), “한국어 어찌말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태규.(1997), “영어시제와 시간부사에 관한 연구”, 「언어학」 5-1, 대한언어학회.
- 서정수.(1996), 「국어 문법」, 서울 : 한양대학교 출판원.
- 성기철.(1972), “어미 ‘-고’와 ‘-어’의 비교연구”, 「국어교육」, 18, 19, 20.
- 손숙자.(1998), “영어 부사구 분석”, 「언어학」 6-2, 대한언어학회.
- 신현숙.(1986), 「의미분석의 방법과 실제」, 한신문화사.
- 양동휘.(1978), “국어 보조동사의 관용성”, 「김영희 박사 송수기념 영어영문학
논총」.
- 양인석.(2008), 「Grammatical Rules of English」, 서울 : 한국문화사.
- 옥태권.(1988),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기용.(1998), 「상황과 정보」, 서울 : 대학사.
- 이숙희.(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Verb Constructio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 이영현·유재근.(2003), 「의미론의 신경향」, 한국문화사.
- 이영현.(2005), “단순동사와 사슬동사의 상적 분류와 의미”, 「언어학」 13-3, 대한언
어학회.
- _____.(2004), “사슬동사의 하위범주와 아원자적 의미기술”, 「언어과학」, 12-1.
- _____.(1996), “한국어 사슬동사의 몇 가지 특성”, 「언어」 21-4, 한국언어학회.
- 이환묵.(1982), “국어합수 표현에 관한 연구, 아니, 또, -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1974), “영어부사에 관한 연구 : 문장부사와 술부부사의 차이를 중심으로”,

- 「영어영문학」 51권, 한국영어영문학회.
- 임유중.(1999), 「한국어부사연구」, 서울 : 한국문화사.
- 최현배.(1984), 「우리말본」, 서울 : 정음사.
- Austin, Jennifer R. et. al.(2004), *Adverbials*,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Amsterdam/Philadelphia.
- Bach, E.(1981), "On Time, Tense, and Aspect: An Essay in English Metaphysics", in Peter Cole (ed) *Radical pragmatic*, Academic Press, New York.
- _____.(1986), "The algebra of events", *Linguistics and Philosophy* 9, pp. 5~16.
- Borer and Hagit(2005), *The Normal Course of Events*, Oxford, Oxford Univ. press.
- Castaneda, H. N.(1967), Comment on D. Davidson's "The Logical Forms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 Charles, Li, and Sandra Thompson.(1974), "Co-verbs in Mandarin Chinese: Verbs or prepositions",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3).
- Cinque and Guglielmo.(1999), *Adverbs and Functional Head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Curme.(1931), *Syntax*, D.C. Heath and Company. Japan.
- Davidson, D.(1967), "The logical form of action sentences", in N. Rescher (Ed.),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Dowty, D. R.(1979),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D. Deidel Publishing Co. Boston.
- Ernst and Tomas.(2002), *The Syntax of Adjun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Fraassen, C, van.(1971), *Formal Semantics and Logic*, Macmillan, New York.
- Galton, A.(1985), *The Logic of Aspect*. Oxford: Clarendon Press.
- Hale, K. and Keyer, S. J.(1993), On argument structure and the lexical expression

- of syntactic relations. Hlae, K. and Keyse, S.J.r (eds) *The View from Buiding20 :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ger*, MIP Press, Cambridge.
- Higginbotham, J.(1995), *Mass and Count Quantifiers* in Bach, E. et al eds. *Quantification in Natural Language*, Kluwer, Dordrecht,
- Hinrichs, E. W.(1985), *A Compositional Semantics for Aktionsarten and NP Reference In English*. Ph. D. thesis, The Ohio State University.
- Hopper, E and Thompson, S.(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 Hoye, Leo.(1997), *Adverbs and Modality in English*, Addisom Wesley Longman, Edinburgh.
- In-hee, Jo.(1990), *Multipl-verb constructions in Korean* in *When Verbs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ed. Joseph, B and Zwicky, A), Ohio-State University, Columbus.
- _____.(1993), *A Unified Semantic analysis of serialization: Intensionality of even individuation*. Diss. of Ball State University.
- In-Seok, Yang.(1978), *Pragmatics of going-coming compound verbs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Columbia: Hornbeam Press.
- Jackendoff, E. G.(1972), *Semantic Interpretation in Generative* Cambridge, MA : MIT Press.
- James, MaCawley.(1968), *Lexical Insertion in a Transformational Grammar without Deep Structure*. *Proceedings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eity* 4
- Montague, R. 1974. *The Proper Treatment of Quantification in Formal Philosophy*, Massachusetts, The Mruuay Printing Co.
- Jansen Bert and Hilda Koopman and Muysken, P.(1978), *Serial verbs in the Creole Languages*, *Amsterdam Creole Studies II*, University of Amsterdam Institute voor Algemene Taalwetenschap.

- Jespersen, Otto.(1949), *A modern English Grammar on historical principles*, V.
London, George Allen and Unwin.
- Jong-Bok, Kim and Jae-hyung, Yang.(2003), Parsing Complex Predicate
Constructions in the Korean LKB. 한국언어정보학회 발표 논문.
_____.(2003), Parsing Complex Predicate in the Korean LKB System. 한국언어
정보학회, 2003학술대회.
- Kamp, H and Reyle, U.(1993), *From Discourse to Logic* (Part I), Kluwer
Academic Publishing, Dordrecht.
- Katz, G.(1999), Anti neo-davidsonianism: Against a davidsonian for state
sentences. In C. Tenny and Pustejovsky, J.(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Stanford, CA : CSLI Publications.
- Kearns, K.(2000), *Semantics*, Macmillan Press, London.
- Kee-Dong, Lee.(1978), The deictic motion verbs KATA and OTA in Korean. In
Papers in Korean Linguistics, (ed. by Chin-W, Kim.) Columbia: Hornbeam
Press. Li, Charles and Sandra. Thompson.
- Kenny, A.(1963), *Action, Emotion and Will*, London, Routledge and Kegan Paul.
- Levis, D.(1975), Adverbs of Quantification, in *Formal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ed by ed. Kee-nan,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rsons, T.(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The MIT Press,
Cambridge.
_____.(1990), *Events in the Semantics of English: A Study in Subatomic
Semantics*. Cambridge, MA : MIT Press.
- Pullum, G. K.(1990), Constraints on Intransitive quasi-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odern Colloquial English. in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 Pustejovsky, J. ed.(1991), *Semantics and the Lexic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London.
- Quirk, R., Greenbaum, S., Leech, G and Svartvik, J.(1985), *A Comprehensive*

-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don, Longman.
- Rescher, ed.(1967), *The Logic of Decision and Action*, Pittsburgh,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Rochette, A.(1993), The selectional properties of adverbs, in *Papers from the 26th Regional Meeting of CLS*.
- Russell, B.(1906), On Denoting, in *Mind* 14.
- Ryle, R.(1949), *The Concept of Mind*, Harmondsworth, Middlesex, Peregrine Books.
- Sang-houn, Song.(2008), Types of Korean Adverbs Korea Univeristy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2, 고려대학교, 서울.
- Sebba and Mark.(1987), *The Syntax of Serial Verbs*, Philadelphia; John Benjamins Publishing Co.
- Sells and Peter.(2004), Words versus Phrase in Syntactic Theory, 대한언어학회 여름연구회 발표. 조선대학교.
- Seuren and Pieter.(1990), Serial verb Constructions. *When Verbs collide :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
- Sook-hee, Lee.(1992), The syntax and semantics of serial construction,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Washington, *Hankuk Publishers*.
- Strawson, P. F.(1960), On Referring, in *Mind* 59.
- Tenny, C and Pustejovsky, J. ed.(2000),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Publications, Standford.
- Thomason, R. H and Stalnaker, R. C.(1973), A semantic theory of adverbs, in *Linguistic Inquiry* IV (2), pp.195~220.
- Thompson, R. H and Sandra.(1973), "Serial verb constructions in Mandarin Chinese Subordination or coordination?" *CLS Comparative Syntax Festival*.
- Travis, Lisa..(1988), The Syntax of Adverbs, in *McGill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McGill University.

- Van Voorst, J.(1988), *Event Structure*, Current Issues in Linguistics Theory, Vol. 59, John Benjamins Publishing, Amsterdam.
- Vendler, Z.(1967),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 NY.
- Wall, R.(1972), *Introduction to Mathematical Linguistics*, Prentice-Hall, New Jersey.
- Verkyul. H. J.(1993), *A Theory of Aspectuality, The Interaction between Temporal and Atemporal Structur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Yoshikawa Hiroshi.(2003), "A Semantic Analysis of Accomplishments of the basis of Event Semantics", in *English Linguistics, Journal of the English Linguistic Society of Japan*, Kaitakusha Publishing co. Tokyo.
- Zwicky, A.(1990), "What are we talking about when we talk about serial verb?" *When Verbs collide: papers from the 1990 Ohio State Mini-Conference on Serial verbs*, Ohio, Ohio State University.